



중수강산

3

주체112(2023)
루계 제403호 월간



표지: 송고한 경의를

조선인민군창건 75돛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는 김일성광장에 주체조선의 국기가 게양되고있다.

열병식참가자들과 전군의 장병들, 온 나라 인민은 국기를 우리러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2



34



42



48



52



56

2 || 조선인민군창건 75돛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24 || 자랑찬 전통, 사회주의애국운동

일화

28 || 애국운동이 전하는 이야기

29 || 국가부흥발전의 추동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30 || 합작은 불가능한가?

32 || 조국을 알게 한 천리길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드린 선물

33 || 나무공예 《민족의 태양따라 천만리》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돛을 맞으며

34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서 (2)

40 || 제품의 질제고에 모를 박고

42 || 평양타조목장

44 || 푸르러지는 대지

45 || 노래와 함께 전해지는 3. 8절의 이야기

46 || 암에 도전한 여성과학자

48 || 민족옷의 전통미를 살려

52 || 자연의 변화를 예측하는 사람들

조국의 품에 안겨

54 || 이어가는 애국의 길

고향소식

56 || 농촌진흥의 설계도따라 변모되는
소신남새농장마을

58 ||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의 시원은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60 || 최악의 대가는 반드시 결산될것이다

우리 나라 력사에 존재한 국가들

62 || 고조선에 뿌리를 둔 신라

조선의 옛 화가들의 이야기를 펼치고

64 || 매화를 잘 그린 화가

민족의 향기

66 || 건강과 장수를 도모하는 성과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로윤경
T-23088001702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2월 8일은 조선인민군이 창건된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조선인민군창건 75돐을 경축하는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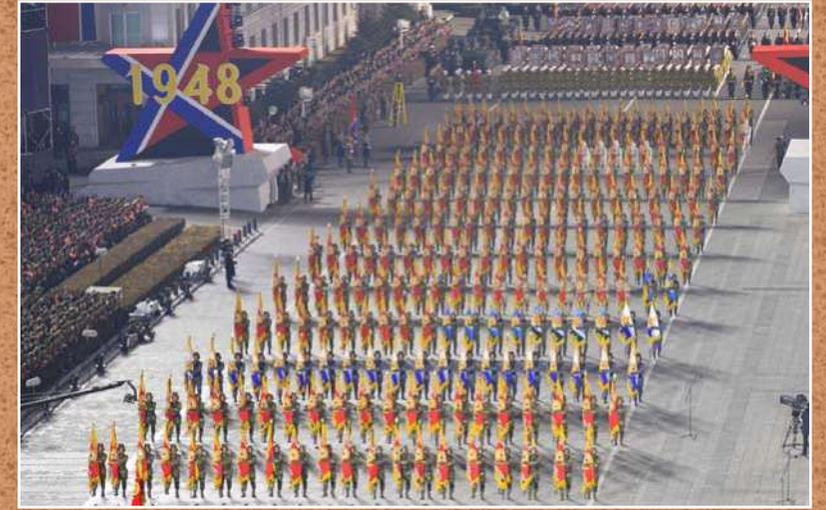
진군절기념열병식이 거행되게 될 김일성광장과 그와 잇닿은 대통령들에게는 강군의 위용넘친 혁명무력의 각 군종, 병종대오들과 첨단무장장비들이 정렬해있었다.

열병식주악을 맡은 공훈국가합창단이 입장하였다.

항공육전병들이 난도높은 집체강하기교로 활공하면서 진군절의 밤하늘에 환희로운 불보라를 펼치고 찬연한 광채를 뿌리는 국기와 당기를 거폭으로 휘날리며 날아내렸다.

이어 혁명군가의 기백넘친 선률로 광장을 진감하며 종합군악대의 레식이 진행되었다.

군악대원들은 룰동대형으로 인민군대의 력사와 전통, 최대의 사명과 필승불패성을 상징하는 오각별과 《2.8》, 《75》 등의 수자들에 이어 당마크와 《강군》이라는 글발을 광장바닥에 련이어 새기였으며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능란하고 재치있는 무기기교를 펼치였다.



혁명무력의 정규화적면모를 과시하며 열병부대들이 금별의 위훈 빛나는 영광의 군기를 앞세우고 대열병관현악에 맞추어 위풍당당히 광장으로 입장하였다.

조선인민군 각급 련합부대 군기입장식이 있었다.

혁명강군의 존엄과 영예의 상징이고 신념의 표대인 조선인민군 군기들이 위풍을 돋구며 광

장주로에 도렬하였다.

경축의 광장에 정렬한 전체 열병대원들, 전군의 장병들이 건군절의 이밤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공화국무력의 총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열을 받을 력사의 시각을 승엄한 격정속에 기다리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리실주녀사와 함께 광장에 도착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영접의식이 엄숙히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와 공화국무력의 주요부대 군기들을 사열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국방성 지휘관들과 대련합부대장들을 비롯한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정중히 영접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력강화의 전조선과 조국의 부강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한 격전장들에서 혁명군대의 전투적기상을 떨쳐가고있는 군지휘관들을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위대한 령장을 우리리 전체 열병대원들과 경축행사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함성이 퇴성마냥 터져올라 온 광장이 격정의 도가니로 화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열병대원들과 관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은 동지께 소년단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병철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영길 동지와 강순남 동지, 박수일 동지, 정경택 동지를 비롯한 무력기관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 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 동지, 김재룡 동지, 전현철 동지가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귀빈석에 자리잡았다.

조선인민군창건 75돐 경축행사참가자들과 특별대표로

초청된 원군미풍열성자들이 초대석에 자리잡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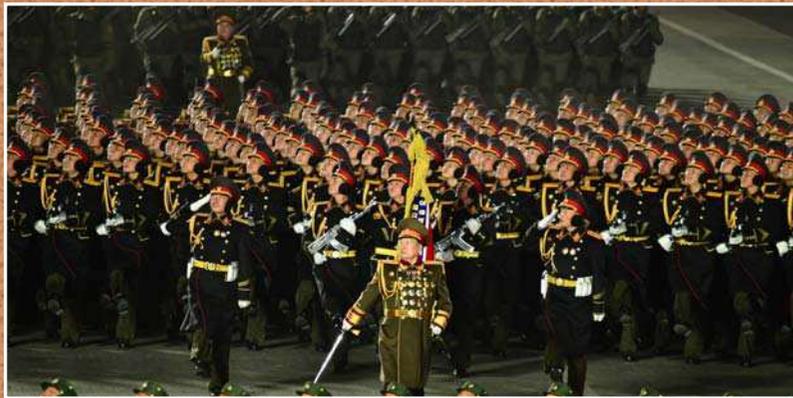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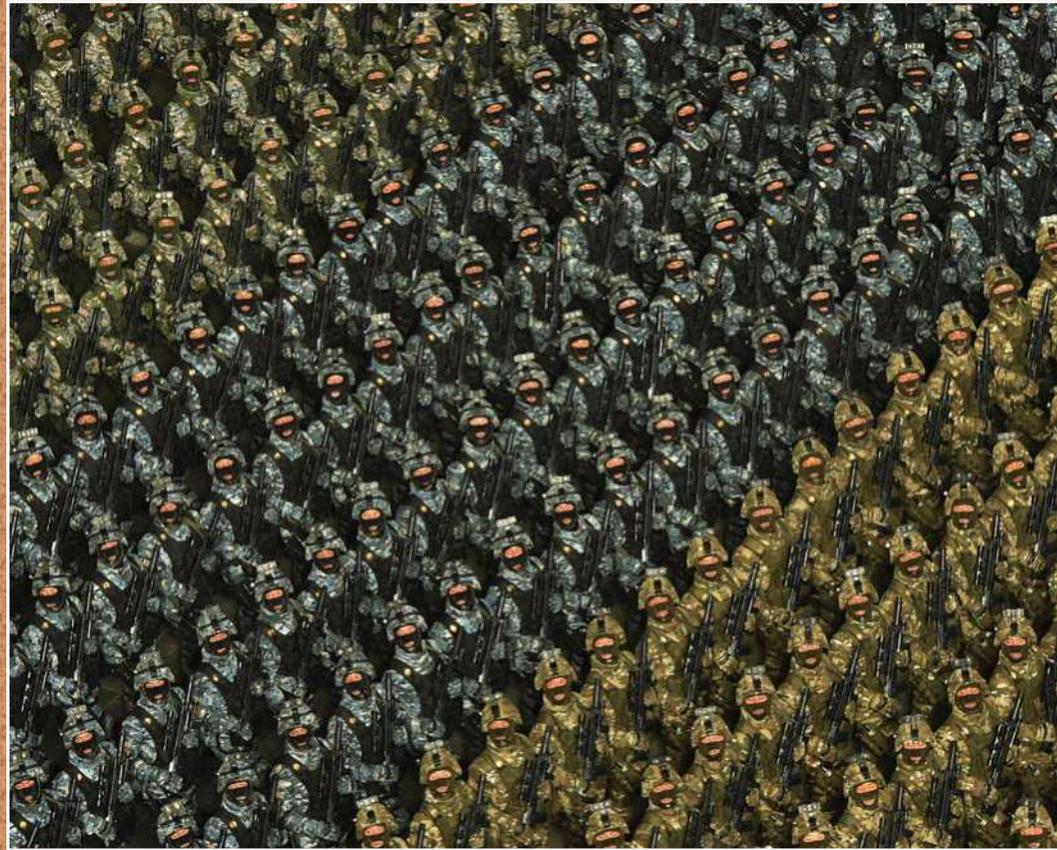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계양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가 김정은 동지께서 세기의 창공높이 휘날려가시는 주체조선의 국기에 열병식참가자들과 전군의 장병들, 온 나라 인민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노래 《빛나는 조국》의 장중한 주악이 울리며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였다.

이어 열병식준비검열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리병철원수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강순남동지가 열병부대들이 열병식준비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리병철동지가 열병부대들을 점검하였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 리병철원수가 조선인민군 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올리었다.

드디어 영광스러운 공화국의 백전백승사를 빛내여온 혁명강군의 장엄한 열병행진이 개시되었다.

열병대오의 선두에서 명예기병중대가 혁명의 수령이 개척한 한길따라 변함없는 한보폭으로

즐기차게 달음쳐온 우리 인민군대의 본연의 자세, 빨찌산정신을 굳건히 이어가는 계승의 역사를 보여주며 호기찬 말발굽소리높이 위엄을 돋구었다.

조선혁명의 낮이고 생명인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창조하여 주체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준 성스러운 전통을 보여주는 항일의 7련대상징중대가 《반일인민유격대》 글발을 새긴 우리 혁명무력의 첫 군기를 높이 들고 용진해갔다.

혁명무력투쟁사에 불멸할 승리전통의 시원을 마련해준 김책동지, 안길동지, 최용건동지, 오중흙동지, 김일동지, 김주현동지, 오백룡동지, 강건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숭엄

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열병대오의 전렬에 군기와 더불어 빛났다.

준엄한 포화속에서 최고사령부를 옹위하여 결사의 방탄벽이 되었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친위중대상징중대가 현철해동지, 연형목동지, 박송봉동지, 심창원동지, 전병호동지를 비롯한 친위중대출신 로혁명가들의 초상사진을 대오앞에 세우고 광장에 들어섰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사에 그 이름 빛나는 제1국방사단, 제2경보병사단, 제3독립보병려단, 제4보병사단 상징중대들도 최광동지, 최현동지, 류경수동지, 오진우동지, 남일동지 등 부대연혁과 혁명무력의 강화발

전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지휘관들의 초상사진을 들고 보병총으로 원자탄을 타승한 근위병들의 멸적의 기개를 떨치며 나아갔다.

상징종대들의 뒤를 이어 당중앙위원회호위처종대, 국무위원회 경위국종대, 호위국종대, 호위사령부종대가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갔다.

적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떠는 정예부대들의 군기를 휘날리며 조국수호의 전초선에서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해나가고있는 군집단들이 장검을 비껴든 지휘관들을 위시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짚었다.

바다의 결사대, 하늘의 방패로 용맹떨치는 해군, 공군종대와 공화국무력의 불가항력의 상징인 전략군종대, 특수작전군종대들도 당중앙이 출전명령만 내리면 질풍노도쳐나가 적들을 섬멸하고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릴 전투정신으로 충천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준엄한 나날에나 평화로운 나날에나 항상 혁명의 전위, 계급의 전위에 굳건히 서서 조선혁명의 혈통, 우리 당의 사상과 위업을 결사보위해나가는 근위병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광장으로 수도 평양의 방어 임무를 맡은 군단들과 조국의 해안과 국경연선, 후방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가는 군단종대들이 기운차게 용진해갔다.

최고사령부가 가리키는 진격의 화살표따라 작전지대들을 단숨에 깔고앉을 무쇠타격집단인 탱크장갑사단, 기계화보병사단



종대들과 정찰총국종대에 이어 제191지휘정보려단종대를 비롯한 전문병, 근무병종대들이 발구름을 높이었다.

제1기동병원종대가 광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은 지난해 수도에 조성된 보건위기를 평정하기 위한 비상방역전에서 우리 당의 믿음직한 별동대, 위대한 김정은시대 혁명군대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남김없이 보여주며

특출한 군공을 세운 군의부문 전투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주체군사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종대, 나라의 최고급군사지휘관양성의 중심기지인 김정일군정대학종대, 인민군대정치일군양성의 원종장인 김일성정치대학종대를 비롯한 각급 군사학교종대들에서 당중앙이 지펴준 군사교육혁명

의 불길높이 당의 강군화위업 실현에 이바지할 맹세를 담아 러치는 함성이 경축광장을 진감하였다.

사회주의조국의 영원한 찬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가 울려퍼지는 속에 혁명학원학생들이 도보종대의 마감을 장식하며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전진해갔다.

진군절경축광장의 밤하늘을

진감하며 주체적공군무력의 열병비행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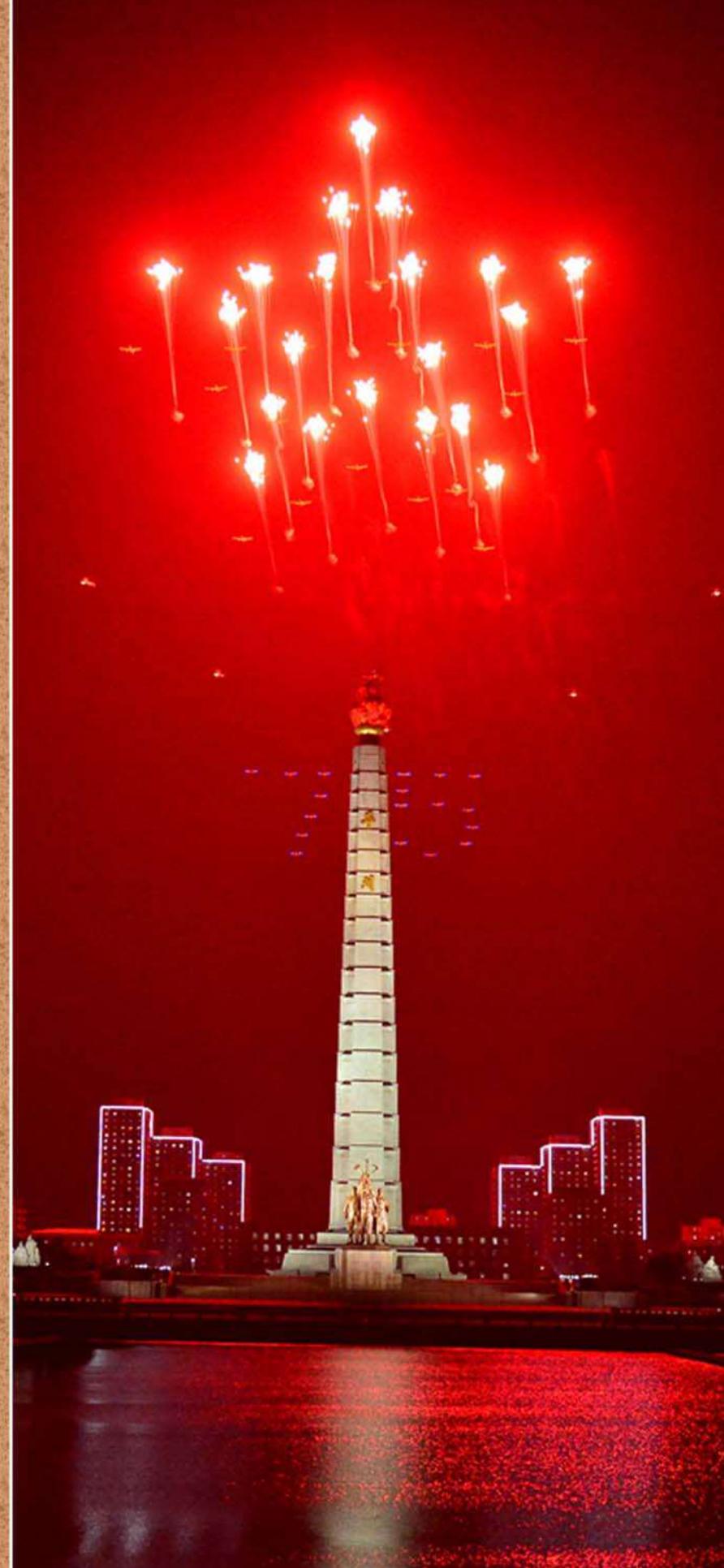
태양을 가장 가까이에서 용위하는 충성의 별이 되어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켜온 인민공군의 위훈, 강군의 역사를 2월의 하늘가에 아로새기듯 오각별과 수자 《75》를 형상한 비행종대가 눈부신 축포탄을 쏘아올리며 광장상공을 통과하였다.

부채살을 형상한 편대가

장쾌한 폭음을 울리며 창공을 헤가르자 관중들은 연해연방탄성을 터치었다.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안녕, 진정한 평화를 위해 건군의 초행길을 세계적인 군사강국건설의 활로로 이어온 당의 자위적 국방건설사를 보여주며 기계화종대들의 열병진군이 시작되었다.

중기를 실은 마차종대를





신두로 모터차콜중대, 반전차포 중대, 평사포중대, 땅크중대들을 비롯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기계화상징중대들이 광장에 들어섰다.

기계화상징중대들에 이어 공화국국방력의 선진성과 현대성, 강대성을 과시하며 조선인민군의 주력무장장비들이 등장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비범특출한 군사전략사상과 현명한 령도 밑에 천하무적의 초대강국으로 급부상한 주체조선의 첨단병기들을 위시한 정의로운 힘의 장엄한 시위가 시작되었다.

인민군대의 전투력의 상징이며 무쇠주먹인 주력땅크중대가 멸적의 광음을 높이 울리고 그 뒤로 포병무력이 강철포신을 추켜들고 광장을 누벼나갔다.





우리 국가 최대의 핵공격능력을 과시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종대



이 세상 그 어떤 강적도 범접할수 없는 필승의 총대를 억세계 틀어쥔 백전백승의 영웅군대 조선인민군의 열병식이 끝나자 위대한 령장께 드리는 천만장병들과 인민들의 최대의 경의와 영광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는 가운데 또다시 황홀한 축포가 더저울라 건군절의 밤하늘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영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혁명강군의 최상의 존엄과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 영원한 생명력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데 있으며 바로 여기에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군대도 가질수 없는 조선인민군특유의 영예와 자부가 있다는것이 영광스러운 건군력사의 가장 빛나는 총화이며 오늘의 열병식이야말로 행성의 모든 악과 불의의 세력을 쓸어버릴 필승불패의 군력을 일떠세운 조선로동당의 만고불후의 업적을 보여주는 자랑찬 축도이다.

* * *

높은 기동성과 타격력을 자랑하는 핵심공격형 무기들의 흐름이 이어지자 관중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열렬히 환호

하였다.

전술미사일종대와 장거리순항미사일종대들이 광장으로 진입하였다.

강위력한 전쟁억제력, 반격능력을 과시하며 도도히 굽이쳐가는 전술핵운용부대종대들의 진군은 위엄으로 충만되고

무비의 기세로 총천하였다.

끝없는 자부와 긍지에 넘친 관중들의 환호와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열병광장에 공화

국국방력의 변혁적인 발전상과 우리 국가의 최대의 핵공격능력을 과시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종대들이 등장하였다.



공화국전략무력의 거대한 실체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은 천하제일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추켜들고 나아가는 일당백혁명강군의 전투적기상과 주체혁명위업의 끝없이 양양한 전도를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한 일대 정치적사변으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자랑찬 전통, 사회주의애국운동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조선혁명고유의 전통인 충실성의 전통, 우리 국가고유의 전통인 애국의 전통을 든든히 견지하고 이어놓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혁명을 전진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이 말씀을 새겨볼수록 전인민적인 사회주의애국운동의 불길속에 찬란한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아가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가슴뿌듯이 어려온다.

돌이켜보면 조국에 대한 열렬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여러가지 애국운동을 벌려온것은 조국인민의 자랑찬 전통이다.

조국이 해방된 이듬해인 주체35(1946)년 재령군의 김제원농민이 토지개혁후 첫해에 거둔 곡식가운데서 30가마니를 나라에 바친것을 계기로 전국적범위에서 세차게 벌어진 애국미헌납운동, 해방후 정주기관구(당시)의 노동자들이 파괴된 수십대의 기관차를 수리하여 수송능력을 높이는 한편 채탄돌격대를 뜻고 자체의 힘으로 석탄을 캐내어 철도운행을 보장한 애국적소행을 본받아 일어버진 김희일운동...

이렇듯 누구나 애국의 한마음을 아낌없이 바치며 여러가지 형태의 애국운동을 벌리며 새 조국건설의 터전을 힘차게 다지였다.

무엇을 바라고 애국운동에 나선것이

아니였다. 누가 시켜서는 더욱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뜻한 품속에서 조국이란 무엇이고 참다운 생이란 어떤것인가를 깨달았기에 애국의 한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수 있는것이다.

애국은 조국의 밝은 앞날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치는 헌신이며 필요하다면 목숨도 서슴없이 내대는 투신이다. 참된 애국은 조국의 통성번영을 위한 길에 있으며 애국적인 삶은 조국에 대한 불같은 헌신으로 빛나게 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속에서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땅크사냥군조운동, 《나의 고지》운동이 힘있게 벌어질 때 후방에서는 군기기금헌납운동, 녀성보잡이운동을 비롯한 전인민적애국운동의 불길이 타올랐다. 이것은 오직 조국의 귀중함을 심장으로 절감한 사람들만이 발휘할수 있는 애국적장거였다.

사랑하는 조국에 깨끗하고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조국인민의 헌신적인 애국운동은 천리마대고조시기에도 힘차게 벌어졌다.

해주-하성철길건설자들은 300%돌파운동, 공결음반대운동, 1시간에 100집지기운동 등 여러가지 운동을 창안하여 적극 벌려나감으로써 보통의 상식으로는 3~4년이 걸려야 한다던 방대한 공사를 불과 75일동안에

해제끼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수도건설자들은 한사람이 한건이상의 예비를 찾아내는 운동을 벌려 7 000세대분의 자재와 자금, 로력으로 2만여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였다.

1961년부터 1969년사이에 150여만명의 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탄광과 광산, 립산과 수산, 동력기지건설장들에 진출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떠민 사실은 전세대 청년들의 혁명적기개와 사업기풍의 뚜렷한 파시이다.

조국앞에 난관이 겹쌓였던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청년들에게 혁명의 해불봉을 안겨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믿음속에 청년사회주의건설자들의 대오는 더욱 역세게 자라났다. 당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려는 청년들의 충성의 열정과 의지가 날로 더욱 분발증화되는 속에 헤아릴수 없이 많은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원진출하였다.

적대세력들의 침략책동이 우심해질 때마다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전화의 그 나날처럼 인민군대입대탄원모임이 열리였고 수많은 남녀청년들이 너도나도 조국보위초소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남녀로소 할것없이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힘차게 벌린 애국운동속에 《청년》호, 《소년》호, 《녀맹》호 등의 이름을 단 기재와 설비들이 마련되고 사회주의건설장에 기증되어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되였다.

정녕 흘러간 년대와 세대들마다 미처 다 훑아보기보차 어려운 그 하많은 애국운동들과 더불어 이 땅우에서는 기적과 번영의 새 력사가 펼쳐졌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들어와서도 조국인민의 애국운동의 자랑찬 전통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주체103(2014)년 11월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을 찾으시고 전사회적으로 사회주의애국립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하신 그이의 애국의 호소를 받아안고 온 나라 인민은 조국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안고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인 사회주의애국립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누구나 나무모를 정성껏 키워 자기 마을, 자기 일터주변의 산들에 심었고 사름틀을 높이기 위해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이 과정에 지난해에만도 11월까지 330여개의 단위가 사회주의애국립칭호를 수여받았고 전체 인민의 뜨거운 애국적열의에 떠받들려 조국 땅은 더욱 푸르러졌다.

이뿐이 아니다.

순결한 량심과 공민적자각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미덕, 미풍의 소유자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10년간 1 500여명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공화국영웅,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으며 2 300여명의 명예칭호소유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이 배출되였다. 이외에도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애국주의를 인생관으로 간직하고 탄광과 광산, 농장 등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하였다.

이 자랑찬 현실은 천만의 심장마다에 애국의 녂과 숨결을 부어주시고 강국건설을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을 백승애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조국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애국운동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이 땅우에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기어이 앞당겨올것이다.

김원식



종합대학건설을 지원하여 애국미를 바치는 농민들
주체35(1946)년 촬영
주체35(1946)년 황해도 재령군의 김제원농민이 발기한 애국미헌납운동에 전국의 농민들이 참가하였다.
주체35(1946)년 12월말까지만 하여도 이 운동에 1만 8 700여명의 농민들이 참가하여 수만가마니의 애국미를 나라에 바쳤다.



밭갈이방법을 배우고있는 농촌녀성들
주체40(1951)년 촬영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의 농촌녀성들이 벌린 녀성보장이운동은 부족하였던 로력문제를 해결하여 농업생산을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모범군인표를 수여받고있는 모범중대 군인들
주체41(1952)년 촬영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인민군 부대들에서 중대를 단위로 벌어진 모범중대운동은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와 전쟁승리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전후에는 새로운 대중적혁신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일으키고있는 강선제강소의
진음원작업반원들 주체48(1959)년 촬영
강선의 로동계급은 주체45(1956)년 1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6만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의 강편을 밀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강선은 천리마대진군운동의 첫 봉화를 추켜든 력사의 고장으로 되었다.



조선소년단창립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소년》호 방사포증정식 주체105(2016)년 촬영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의 소년들이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벌린 《소년》호헌납운동은 오늘 나라의 국방력강화와 경제건설에 이바지하는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승무를 성과적으로 마친 고원기관차대
《붉은기》5101호 승무조원들 주체69(1980)년 촬영
조국의 철도부문에서는 5. 18무사고정시건인초파운동이 시작된 이후 10개월동안에 3 000만이상의 짐을 견인정량보다 더 끄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사회주의애국립운동에 펼쳐나선
평안남도 회창군 인민들
주체111(2022)년 촬영
국토관리사업이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주체111(2022)년 한해 동안에만도 330여개의 단위가 사회주의애국립칭호를 수여받았다.

애국운동이 전하는 이야기

리계산운동

주체36(1947)년 강원도 평강군 옥동리(당시)의 리계산녀성은 해방의 기쁨과 함께 농민들에게 땅을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싶었다.

그래서 분여받은 땅에서 지은 곡식중에서 밀 두말과 풋감자 한말을 알알이 골라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가 만나보웠다.

그날 그이께서는 먼길을 오느라고 수고하였다고 반갑게 맞아주시고는 그가 아직 우리 글을 전혀 모르고있다는것을 아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글을 배워야 한다고, 글을 알아야 사람이 사는 보람이 있고 나라일에 적극 기여할수 있다고 깨우쳐주시면서 석달동안에 문맹을 퇴치한 다음 인민들에게 문맹퇴치운동을 더욱 힘있게 전개할것을 호소하여야 하겠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이앞에서 약속한 때로부터 석달이 지난 10월하순 어느날 그 녀성은 드디어 문맹을 퇴치하고 며칠밤을 새워가며 쓰고 지우고 하면서 한자한자에 있는 지성을 담아 편지를 썼다.

그의 소박한 편지를 받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만족하시며 높은 치하와 격려의 회답편지를 보내주시였으며 문맹퇴치사업에서 발휘한 그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리계산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이 운동과 더불어 문맹퇴치 운동은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 새 조국건설의 터전이 굳게 다져졌다.

26호선반을 돌리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인 주체50(1961)년 4월중순부터 5월초까지 평양방직기계제작소(당시)에서 진행된 생산실습에 참가하시어 26호선반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상 아침일찍 출근하시어 26호선반을 청소하는것으로부터 하루일을 시작하시였으며 낡은 기대를 새 기대로 만들어놓으시였다.

기대선반공이 놀라워 어떻게 낡은 기대를 새 기대로 만드셨는가고 묻자 그이께서는 설비를 자기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기계설비들을 더 잘 애호하고 관리하여 공장의 모든 기대가 나라의 만년대계의 귀중한 재부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구함에 기본공구와 보조공구들도 하나하나 마련해주시였다.

이 모범은 직장파 온 공장에 퍼져갔으며 그것은 마침내 1980년대에 들어와 80년대 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벽찬 흐름속에서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의 불길로 타올랐다.

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설비들을 애호관리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였다.

대중적설비관리운동인 이 운동은 오늘도 커다란 생활력을 과시하고있다.

몸소 발기하신 대중운동

주체103(2014)년 11월 어느날 나라의 산림형편을 두고 마음쓰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였다.

양묘장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오늘 나라의 산림이 한심하게 된것이 너무 가슴아파 중앙양묘장에 나왔다고, 지금 나라의 산림은 사람에게 비유하여 말하면 습진과 같은 피부병에 걸린것이나 같다고 하시며 가슴아프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기 손이 틀가봐 크림을 바르는 사람은 많아도 나라의 산림형편을 놓고 가슴아파하며 스스로 나무를 심는 사람은 얼마 없다고 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중앙양묘장을 떠나시기에 앞서 일군들에게 사회주의애국립운동을 벌리라고 호소하시였다.

그리고 사회주의애국립운동은 온 나라 인민들이 벌려야 할 대중운동이라고 하시였다.

이 운동과 더불어 조국의 산들은 더 푸르러지게 되었다.

* * *

국가부흥발전의 추동력

국가부흥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하고 옹계 이끌어가는것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중요하게 강조된 문제의 하나이다.

지금 철도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전인민적인 사회주의애국운동의 불길속에 마련된 전세대들의 고귀한 애국의 전통을 계승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해방후 철도부문에서는 애국운동인 김회일운동이 벌어졌다.

김회일운동은 해방후 첫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던 시기 정주철도종업원들이 벌린 대중적인 애국운동이었다.

주체35(1946)년 10월 어느날 정주기관구에서 기관차를 점검하던 김회일은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속에서 굳어지고 기름에 절은 그의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그곳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당시 정주기관구에는 기관차가 수십대 있었지만 일제가 도망가면서 모두 마사놓았기때문에 겨우 대여섯대만이 움직이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지금 건국사업에서 큰 난관으로 되고있는것은 철도운수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기관차와 객화차가 부족하고 석탄도 없어 렬차운행에 큰 지장을 받고있다고, 그렇다고 누가 가져다주기를 기다릴수는 없다고, 우리는 모든것을 제힘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사실 많은 기관차를 세워두고도 그것을 수리하여 쓸 생각은 하지 않고 기관차가 부족하다고 우는소리만 하면서 난관을 뚫고나갈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있는것은 정주기관구만이 아닌 전국의 철도형편이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김회일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며 철도일군들은 나라에서 해결해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애국적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모든 악조건을 용감하게 극복해나가야 하며 철도수송을 하루빨리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 다녀가신 후 정주기관구의 철도로동계급은 기관차수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의 투쟁에 대하여 당시 《로동신문》(1947년 1월 24일부)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일제시대에 통산기관구에서만 할수 있던 기관차의 대수리를 정주기관구에서도 능히 할수 있게 하였고 북조선에 없는 부속품들중 많은 부분을 자급자족하도록 창의적으로 연구제작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일제시대에 사용치 못한다고 돌보지 않던 28대의 기관차를 수리하여 북조선 각 선에 복무시켰으며 42대의 대수리와 87대의 중수리와 17대의 연통환차와 기타 수많은 소수리의 방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은 기관차수리에 달라붙는 한편 연료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떨쳐나섰다.

부족되는 고열탄을 해결하기 위해 채탄돌격대를 못고 안주탄광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동발 한대 성한것이 없고 석수가 쏟아지는 갱안에서 서슴없이 뛰어들어가 탄을 캐냈으며 그것을 한짐두짐 저내다가 가루를 내어 알탄을 빻었다.

12월중순 어느날 이렇게 만든 17t의 알탄을 기관차에 실은 김회일을 비롯한 정주기관구의 로동계급은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낳은 자랑찬 열매였다.

해방후 건국의 초행길에서 전개된 김회일운동의 불길속에서 철도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는 년대와 년대를 이어 더욱 고조되었다.

두줄기 궤도를 따라 기운차게 내달리는 《붉은기》호전기기관차들과 중량화차들, 인민의 웃음소리 가득 실고 지하평양을 누비며 달리는 지하전동차들...

이 모든것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온 철도로동계급의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이 낳은 고귀한 창조물들인것이다.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을 위한 전인민적진군에 떨쳐나선 철도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혁명적열의는 대단히 높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수많은 대중적인 애국운동을 전개하여 청소했던 우리 조국을 번영의 길로 출달음치게 하였던 그때 그 나날처럼...

서광명

합작은 불가능한가?

(전호에서 계속)

나는 행길에 나서자 김일룡에게 대렬을 맡기고 차광수와 함께 량세봉과의 담판계획을 다시금 상세하게 토의하였다. 나의 모든 사색과 상념은 미구에 맞닿을 듯 독립군과의 사업에 집중되고 있었다. 물레방아간집로인이 생각도 걱정도 일도 말도 다 적게 하고 지어 웃음까지 적게 웃는 것이 섭생의 본도라고 귀에 못박히게 강조하였지만 나는 도저히 것처럼 구속이 심한 섭생법을 지켜낼 수가 없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사람들이 아직 한번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가는 독특한 창조과정이었으므로 누구보다도 사색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의논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가장 관심한 것은 반일인민유격대와와의 교섭에서 량세봉이 어떤 태도로 나오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교섭의 결과에 대하여 차광수는 처음부터 미심쩍은 태도를 취하였지만 나는 시종일관 낙관적인 예측을 하였다.

통화시가의 전경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내 머리에는 량세봉에 대한 유쾌한 일화가 불쑥 떠올랐다. 그것은 아버지가 병환에 게실 때 뜻을 같이 나는

동지들을 한사람한사람 회상하면서 나와 어머니에게 여담으로 들려준 일화였다.

3. 1운동전야에 량사령의 향촌에서는 빈농민들을 망라한 계가 중심이 되어 밭을 논으로 푸는 개답공사를 벌리었다. 량사령의 집도 이 계에 망라되어 있었다. 소출을 많이 내는데서는 논이 밭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있던 그는 이 개답공사를 적극 환영하였다. 그런데 계의 상층을 차지하고있던 로장파들이 논농사파악이 없다는 구실을 내걸고 개답공사를 완강하게 반대해나섰다. 로장파와 소장파사이에는 봄씨불임을 앞두고 련일 계가 생긴이래 처음 보는 아귀다툼이 벌어졌다.

소장파 젊은이들은 하늘소밭통같은 로장파 늙은이들의 고집을 도저히 휘어낼수 없었다. 계에서는 그해에도 파종기가 오자 젊은이들이 논으로 풀지 못해 안달아하는 밭에 조와 보리를 심었다. 늙은이들은 계의 농사가 젊은것들에게 룡락당하지 않고 예전대로 순조롭게 되어가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소장파의 우두머리였던 량세봉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기회를 노리었다. 모내기철이 되어 사방에서 개구리가 울던 어느날 밤 소를 끌고 들에나간 그는 조와 보리씨가 한창

푸름푸름 자라는 여러 빼기의 밭을 쥐도 새도 모르게 다 논으로 갈아버리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와 보리가 무럭무럭 자라던 밭이 하루밤사이엔 논으로 변하여 물까지 출렁거리는것을 본 늙은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생벼락을 맞을 놈, 계의 농사는 네가 다 망쳐놓는구나. 금년농사를 망치면 네놈두 거지가 될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조나 보리를 심으면 아홉십밖에 나지 않던 그 빼기밭들에서 량세봉은 그해 가을 스물넉십의 소출을 냈다.

계의 늙은이들은 깜짝 놀라서 《저 세봉이가 하여튼 난놈은 난놈이웨다.》하고 혀를 찼다. 그후부터 량사령의 향촌과 그런근마을에서는 논농사를 하는 집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계를 쥐락펴락하던 상투쟁이령감들도 량세봉의 말이라면 고분고분 다 들었다.

통화를 지적에 둔 로상에서 이런 일화가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무엇때문이었을가. 아마도 그것은 량사령과의 담판이 성공적으로 끝날것이라는 자기의 예상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내자신이 사색을 집중하였기때문인지도 모른다.

량사령은 3. 1운동전야에 고향(철산)을 떠나 남만의 흥경현으로 들어갔다. 우리 아버지가 량세봉을 맨 처음으로 만난 곳

이 바로 이 흥경땅이었다.

그 당시 그는 동의부에서 검무관으로 활동하였다. 정의부가 나온 다음에는 중대장으로 임명되어 일약 오동진사령의 총애를 받는 중견간부가 되었다. 그의 중대주둔지가 바로 무송이었다. 그래서 나도 량세봉을 만나볼수 있었다.

우리가 팔도구에서 무송으로 이사한지 얼마 안되어 량세봉은 다시 흥경현으로 소환되어가고 그대신 장철호가 그의 후임으로 무송에 왔다. 3부의 통합으로 국민부가 태어났을 때 독립군의 지도간부들은 성품이 바르고 실행력이 강하며 민중의 촉망이 높은 량세봉에게 군통수권을 맡기었다. 량세봉은 군부에서뿐만아니라 3부의 원로중신들이 모인 조선혁명당안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있었다.

량사령은 늘 자기와 김형직은 결의형제라고 하면서 나를 친구의 자식으로 극진하게 사랑해주었다. 오동진, 손정도, 장철호, 리웅, 김사현, 현목관과 함께 길림에서 나를 경제적으로 제일 잘 후원해준 사람이 바로 량세봉이었다.

왕청문사건이 있을 후 국민부상층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몹시 나빠지고 또 그 반동화된 단체의 군부수뇌인 량세봉과도 오래동안 상면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지만 나는 나에 대한 량사령의 사랑과 믿음이 변치 않

았을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 모든것은 어느것이나 다 인간 량세봉, 애국가 량사령에 대한 호감을 주는 회상들이었다. 우리의 합작활동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질수 있는 그런 과거에 대하여서는 구태여 추억하지도 않았다. 나는 될수록 우리의 담판전망을 낙관적으로 조명해줄수 있는 그런것들만을 회고하려고 애썼다. 그것은 담판의 전도를 어렵게 할수 있는 불리한 증거들로 자기자신을 심리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려는 방어본능의 심리작용이였는지도 모른다.

통화를 비롯한 동변도의 20개 현은 모두 동변도 진수사 우지산의 관할하에 있었다. 그는 한때 장작림으로부터 제30군 군장으로 임명받은바도 있는 장령이였으나 1930년 6월의 대도회의 반란진압에서 솜씨를 발휘하지 못하여 장학량의 신용을 잃었다. 우지산은 동변도 주요지점들에 1개 려단규모의 성방위군을 배치하고 이 일대의 최고통치자로서 군림하였는데 9. 18사변후에는 동변도보안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사령이 되었으며 관동군수뇌들과 련계를 가지면서 봉천성의 괴뢰정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관동군은 우지산의 협력을 담보로 이 지구에 대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독립수비대와 만주국군, 경찰에 이 일대의 치안유지를 맡기었다. 관동군의 대

부분 력량은 당시 북만에 쏠리고있었다.

이런 기회를 타서 당취오의 룡녕민중자위군이 량세봉회하의 조선혁명군부대와 함께 통화현성을 포위하였다. 오기쯔요시로주임을 비롯한 일본령사관 통화분관의 일본인직원들과 가족들은 모두 이 포위속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구조를 기다리게 되었다.

관동군사령부는 통화현성이 포위되어 현지의 일본인들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모든 병력이 북만일대에 총출동중이였으므로 다만 100명 정도의 경찰관들을 구원대로 파견하고 우지산군의 방조를 기다리었다. 우지산군은 두 대로 나뉘어 북쪽과 봉성방면에서부터 량, 당의 련합군을 압박하였다.

관동군에서는 이다가끼참모장을 내세워 《통화에 있는 일본인 여러분, 봉천에서 급히 지원부대가 래일 아침 도착하므로 잠시 완강히 견지하여주시오.》하는 방송을 하게 하였다.

이처럼 9. 18사변후 국제련맹조사단의 만주과견과 때를 같이하여 봉천성일대의 반만항일군은 도처에서 일본침략군대와 만주국괴뢰군대를 위협하였다. 이런 때여서 통화현성을 장악하고있는 조선혁명군과 자위군의 사기는 매우 높았다.

(다음호에 계속)

조국을 알게 한 천리길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 10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류레없이 암담했던 민족수난의 그 세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을 알고 조선을 위하여 배우리라는 큰뜻을 안고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

조국인민 누구나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안고 잊지 못할 력사의 그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팔도구소 학교졸업을 앞둔 어느날이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어리신 아드님께 이제는 소학교를 졸업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장차 어떻게 할 생각인가고 물으시었다.

상급학교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싶다는 아드님을 바라보시며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이제부터는 조선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조선에서 태어난 남아라면 마땅히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고, 고향에 나가서 우리 인민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있는가 하는걸 체험해보라고, 그러면 자기 할바를 잘 알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때로 말하면 다른 나라에 가야 개명도 하고 학문도 닦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이 하나의 시대적풍조로 되고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에서 태어난 남아라면 마땅히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아버님의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조국에로의 길을 택하시었다.

그날은 주체 12(1923)년 3월 16일이였다.

그이께서 가서야 할 천리길은 12살의 어리신 나이에 헤쳐가시기에는 너무도 험난한 길 이였다.

로상의 절반이상은 무인지경이나 다름없는 험산준령이였다.

바로 이런 곳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단신으로 파감히 헤치시었다.

그이께서는 그때를 돌이켜보시며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그때 천리길을 걸으면서 고생을 퍼그나 했다, 직고개나 개고개(명문고개)와 같은 고개를 넘을 때는 정말 혼이 났다, 오가산령은 하루종일 넘었다, 아무리 걸어도 고개가 끝이 나지 않고 새 고개가 연방 나타나곤 하였다고 쓰시었다.

이처럼 험난한 길을 걸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땅이르는 곳마다에서 많은것을 목격하시었다.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 신음하는 겨레의 모습, 살길찾아 떠나는 류량민들의 끊임없는 행렬, 인민들의 원한에 찬 목소리...

그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하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수난당하는 조국의 현실과 인민들의 모습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포악한 일제를 모조리 쓸어버리고야말 억척의 맹세로 가슴 불태우시었다.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며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을 잘 알게 되시었다.

힘준한 오가산령을 넘느라 발이 부르트신 그이께 딱총을 놔드린 한 이름모를 로인, 그이를 발구에 태워드린 한 농민, 어리신 그이를 극진히 환대해드린 강계객주집의 주인과 할머니...

위해주고 아낌없이 도와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은 참으로 좋은 인민이라는것을 뜨겁게 느끼시였으며 나라찾는 큰일을 하자면 그들에게 의거하고 동지가 많아야 하겠다는것을 절감하시었다.

팔도구를 떠나신 때로부터 열나흘째 되는 날인 3월 29일 해질무렵 마침내 그이께서는 만경대에 도착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2살의 어리신 나이에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

정녕 그 길은 오직 자체의 힘으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고 민족번영의 위업을 이룩해 나가실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애국자의 신념의 맹세가 자욱자욱 빛발치는 거룩한 행로였다.

그 맹세는 그대로 광복의 천리길과 항일대전의 총성으로 이어져 조국해방의 환희를 안아왔고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오늘 그이께서 걸으시였던 배움의 천리길을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따라 걸으며 애국의 뜻을 새기고있다.

본사기자

나무공예

《민족의 태양따라 천만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이 드린 선물 주체 101(2012)년 2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서 (2)



조국해방전쟁 제2계단 판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쟁 제2계단의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적들의 공격을 저지시키면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조직령도하신 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을 승리로 이끄신데 대한 해설을 들은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전쟁 제2계단의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신 사적자료들이 전시되어있는 곳에 들어섰다.

강사는 주체39(1950)년 9월중순 우리 조국

앞에 조성된 엄중한 난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 인민군부대들의 반공격으로 락동강건너편의 좁은 지역으로 압축된 침략자들은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태평양함대의 대부분과 지중해함대의 일부, 추종국가군대들까지 동원하여 이른바 <총공세>를 벌리려고 기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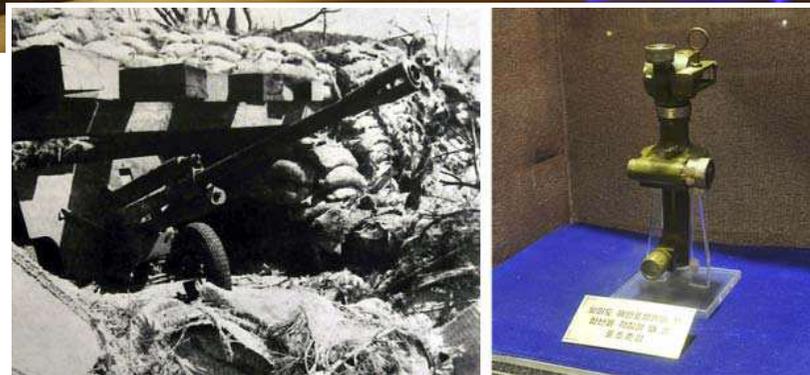
일명 <모루-메>작전으로 불리우는 이 작전에 적들은 수십만의 대병력과 현대적인 군사장비들을 들이밀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적들의 진공속도를 최대한으로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쟁취하여 인민군주력부대들을 구출하고 새로운 후비부대들을 편성하여 강력한 반

공격집단을 형성하며 계획적인 후퇴를 조직할데 대한 전쟁 제2계단의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강사의 해설은 참관자들의 마음을 70여년전의 그 나날에로 이끌어갔다.

침략자들은 태평양방면에 배치하였던 룡해공군을 총동원하고 지중해함대의 일부와 예비



월미도해안포병들이 적함선을 격침할 때 쓴 76mm해안포와 포조준경

로 두었던 군함들 그리고 추종 국가군대들을 조선전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었다.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증강한 병력으로 락동강계선에서 공격을 시도하는 한편 이와 배합하여 인천지구에서의 대규모적인 상륙작전을 기도하였다. 적들은 인천에 대병력을 상륙시켜 인

천과 서울을 점령하고 38° 선과 대전, 원주방향으로 진출함으로써 우리의 전선과 후방을 차단하며 락동강계선의 공격집단과 연합하여 인민군주력부대들을 《포위소멸》하고 짧은 시일안에 전조선을 강점하려고 타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급변하는 군사정세에 대처하여 서울지구방어력량을 증강하고 새로운 예비부대를 편성하며 적들의 발악적공세를 저지시키고 새로운 결정적타격을 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그이께서 취하신 조치에 따라 인천, 서울지역방어부대들과 인민들은 애국주의와 집단적영

웅주의를 발휘하여 수적,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들과 용감하게 싸움으로써 침략자들을 14일간이나 저지시켰다.

참관자들은 월미도방위자들의 위훈이 담긴 사진들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적들은 인천상륙을 위하여 5만의 대병력과 300여척의 함선, 1 000여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월미도에 대한 공세를 벌리었다. 그때 월미도의 해안포병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목숨으로 관철하여 3일간이나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월미도방어전투때 용감히 싸운 권성전투원의 당원증주머니와 월미도해안포병들

이 적함선을 격침할 때 쓰던 신호기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조국의 존토를 피로써 지켜낸 인민군용사들의 자기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무비의 용감성에 대하여 다시금 돌이켜보았다.

서울이남지역에서 인민군주력부대들을 포위소멸하려던 기도가 실패하자 적들은 이미 38° 선을 벗어난 인민군주력부대들을 평양일대에서 포위섬멸하려고 획책하였다.

적들의 이러한 기도를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부대들이 38° 선일대에서 적을 견제하며 전선의 인민군주력부대들의 후퇴를 보장하는데 주되는 힘을 돌리도록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이 38° 선을 비롯한 중간지대들에서 완강한 방어전을 벌리게 하심으로써 적의 진공을 지연시키고 인민군주력부대들이 남북으로 뻗어있는 산줄기를 타고 전략적후퇴를 할수 있는 조건과 시간을 쟁취하게 하시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아군전선련합부대들은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을 강점하려던 적들의 침공기도를 저지파탄시키고 반공격으로 넘어갈수 있는 강력한 힘을 축적하였다.

강사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이 전시되어있는 곳으로 참관자들을 이끌었다.

참관자들은 전쟁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심에 넘쳐 독창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영상미술작품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우리를수록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천리해안의 군사적예지를 지니시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나간 그이의 절세의 위인상이 어려와 참관자들은 솟구치는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그이께서 전쟁 제2계단시기에 사용하신 승용차라지오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보장사업과 관련하여 쓰신 친서들을 비롯하여 여러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돌아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9(1950)년 10월 범동농민을 만나주시는 불멸의 화폭을 전하는 영상미술작품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고 한 로인의 말이 귀전에 들려오는듯싶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족과 함께 후퇴의 길에 오른 리승기박사에게 친히 보내주신 모직외투를 보면서 우리 과학자들을 귀중한 보배로 여기며 아껴주신 그이의 사랑을 가슴뜨겁게 느끼었다.

하나하나의 사적자료들과 전시품들은 준엄한 전장의 불비속을 뚫고헤치며 온 나라를 전쟁승리로 불리일으킨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우리 공화국을 지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의 위훈을 전하고있었다.

이어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 제2계단의 전략적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유격투쟁을 현



새로운 계선으로 진출하고있는 전투원들



새로 편성된 부대들



적강점지역에서 진행된 빨찌산들의 투쟁자료들도 전시되어있다.

명하게 조직령도하신 내용을 해설하였다. 인민유격투쟁을 광범히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그이의 령도에 의하여 구월산인민유격대를 비롯한 수많은 인민유격대들이 조직되고 전국도처에서 청년근위대, 소년근위대들이 사랑하는 고향과 학교를 지켜 싸움의 길에 나섰다. 이들은 철도와 도로, 적들의 군수창고와 통신수단들을 파괴하고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도처에서 강점자들을 쳐부시며 도시와 마을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그들의 위훈을 전하는 투쟁자료를 보며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0(1951)년 1월 안주군 립석중학교 소년단위원장을 친히

최고사령부로 불러주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그의 전투보고를 들으시고 우리 나라 소년단원들이 정말 영웅적인 소년들이라고, 소년들이 근위대를 조직하여가지고 싸운것은 우리 조국력사에 길이 빛날 일이며 세상에 내놓고 널리 자랑할만한 일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었습니다.》 이어 참관자들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조직지휘하시는 한편 새로운 반공격준비를 갖추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

그이께서는 북부내륙산간지대에 튼튼한 반공격기지들을 확보하도록 하시였으며 인민군부대들을 재편성하고 정비보강하여 반공격집단과 예비부대를 편성하며 훈련을 강화하여 반공격력량을 튼튼히 꾸리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반공격을 위하여 특히 정규군의 련

합부대들로 적후에 강력한 제2전선을 형성하도록 하시였다. 제2전선은 세계전쟁사에 일찌기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적후투쟁형식으로서 개별적부대나 빨찌산부대의 유격투쟁과 전혀 다른 적후에 펼쳐지는 정규무력의 제2전선이며 최고사령부의 통일적인 작전지휘밑에 적후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인민들을 해방하면서 진행하는 정규군의 작전이였다.

제2전선부대들의 과감한 적후투쟁은 적의 진공속도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아군의 반공격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였으며 전쟁 차후계단에서 아군의 타격력을 앞뒤에서 보장함으로써 적의 강점지역을 신속히 해방할수 있게 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통하여 더욱 역세게 단련되고 강해졌으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반석같이 다져졌다. 반면에 적들은 곳곳에서 얻어맞고 참패를 당하며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

참으로 조국해방전쟁 제2계단의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군사전략의 승리였으며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운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인 조국수호정신이 안아온 승리였다.

참관자들은 세인을 놀래운 전승신화와 세계전쟁사에 기적을 창조한 위대한 승리가 어떻게 마련되게 되었는가를 절감하면서 참관의 길을 이어갔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제품의 질제고에 모를 박고

- 희천정밀기계공장에서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희천정밀기계공장의 종업원들이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공장은 지난 수십년간 자동차와 트랙트르 등에 쓰이는 여러가지 중요부속품들을 다량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미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한 공장에서는 최근시기 른전기재에서 심장부라 할수 있는 연료뿔프와 분사기 등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공장의 일군들은 기술자들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내놓은 방안을 놓고 집체적협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였다.

이러한 속에 설계단계에서 연료뿔프의 구조를 바꾸고 분사기의 정밀도를 높일수 있는 안을 비롯하여 수입자재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는 가치있는 방도들이 나오게 되었다.

공장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생산공정을 새롭게 확립하고 지구장비들을 현대적으로 제작설치하기 위한 대책도 따라세웠다. 이와 함께 새형의 부속품가공에

서 높은 정밀도를 보장하였다.

지금 이곳에서 생산된 연료뿔프와 분사기 등은 보다 높아진 성능으로 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전반적인 부속품의 질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평양타조목장

열대의 사막에서 살던 아프리카타조가 조국의 기후풍토에 순화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20여년이 흘러갔다.

그 나날 평양타조목장은 55만㎡의 부지에 준비하게 늘어선 110여개의 타조우리들에서 1만마리에 달하는 타조를 사육하고 갖가지 가공품을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조건을 갖춘 종합적인 축산기지로 전변되었다.

목장에는 알깨우기실들과 큰

단백질재배장, 단백질공장을 비롯한 사료보장기지들, 타조고기가공공장, 대양타조제품제조소 등이 꾸려져있다.

지배인은 《타조고기는 단백질함량이 높으며 지방이 적고 인체에 필요한 21가지 아미노산을 포함하고있다. 타조가죽은 그 무늬가 독특하고 질감이 높아 값이 매우 비싸다. 우리 나라 속담에 <꿍먹고 알먹고 등지털어 불뎀다>라는 말이 있는것처럼 목장에서는 타조로

고기와 알생산뿐만아니라 질 좋은 가공제품들과 첨가제들도 생산하고있는데 정말이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였다.

지금 목장에서는 축산과 사료작물생산, 가공제품생산이 고리형순환체계로 이루어져 적지 않은 경제적실리를 얻고있다.

타조고기가공공장에서만 보아도 타조고기와 부산물로 타조고기풀바싸와 타조고기순대, 타조고기만두, 다진타조고기,

목걸이는 관절염치료에 효과적일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기호품으로도 되고있다.

이곳의 공예사들은 타조알껍질이나 털을 리용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는 값진 장식품들도 만들고있다.

타조가죽으로 만든 신발과 가방은 그 질이 좋아 사용자들속에서 인기가 높다.

목장에서는 타조의 배설물로 유기질복합비료, 익생균첨가제를 생산하여 타조의 사료작물생산과 방역사업에 이바지하고있으며 뽕물등에, 단백질곤충을 먹이첨가제로 리용하여 맛좋은 고기와 알의 생산량을 늘여나가고있다.

어느 하나도 버리는것없이 생산된 여러가지 질 좋은 타조가공제품들은 조국인민들의 생활속에 더 깊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타조힘살찜, 타조고기햄, 타조발쪽찜 등 10여종에 20여가지의 식료품을 생산하고있다.

대양타조제품제조작소에서는

타조의 뼈와 가죽, 알, 부산물로 인기가 높은 가공제품들을 만들고있다.

타조뼈로 만든 반지, 팔찌,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푸르러지는 때지

식수절과 더불어 전국각지에서 나무심기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조국인민들은 삶의 터전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에 성실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열의드높이 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지난해 3월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식수를 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모습이 간직되어있다.

중앙과 지방의 당, 정권기관, 국토환경보호부문의 일군들은 대중의 앞장에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지방별특성에 맞게 나무심는 시기를 바로 정하고 공정별작업을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짜고들었다.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식수사업은 이 땅에 사는 공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이며 자기의 땀과 노력으로 행복의

씨앗을 심고 미래를 가꾸어가는 성스러운 애국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새기고 떨쳐나 곳곳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고있다.

대성구역, 삼석구역과 강동군 일군들은 생물학적특성과 토양조건에 따르는 나무심기방법을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도록 하였다.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식수는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심고 뜨거운 애국심을 심으며 영원히 변색없을 순결한 량심을 심는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나무심기에 헌신의 구슬땀을 바치고있다. 자기 고장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나갈 일념 안고 도안의 근로자들은 사름률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면서 나무심기에서 날마다 실적을 올리고있다.

황해남도에서도 단계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로력조직과 나무모보장사업을 실속있게 하면서 많은 나무를 심었다. 도일군들은 지난해 산림복구사업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올해에 수종이 좋은 나

무를 더 많이 심고 품을 들여 가꾸고있다. 해주시와 태탄, 장연, 용진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은 애 어린 나무모가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부흥을 떠받드는 거목으로 자라날 그날을 그리며 나무심기에 정성을 다하였다. 황해북도에서 나무심기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일군들은 봄철나무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단계별목표를 면밀히 세우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토산, 신계, 연탄군 등 도안의 근로자들은 애국의 마음으로 떨쳐나 많은 면적에 나무를 심어 풍치를 한껏 돋굴수 있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평안남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나무심기에 성실한 땀을 바치고있다.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에 땀을 묻고 애국을 묻고 량심을 묻어가는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에 의해 조국의 산과 들은 더욱 푸르러지고있다.

본사기자

노래와 함께 전해지는

3.8절의 이야기

3.8국제부녀절이면 여성들의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넘쳐흐르는 조국강산에 《너성은 꽃이라네》, 《사랑하시라》, 《너성의 노래》와 같은 여성찬가들이 기쁨넘친 웃음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고있다.

한편의 노래에도 해당 나라의 사회상이 비끼듯이 노래들에는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고있는 여성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비껴있다.

조국에서 노래와 함께 전해지는 3.8절의 이야기들을 더듬어본다.

* * *

주체84(1995)년 3월 8일.

이날의 아침은 《사랑하시라》의 새 노래선률속에 밝아왔다.

가사에는 언제나 말없이 정답게 웃음지으며 어머니로서, 안해로서, 며느리로서, 살뜰한 주부로서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책임과 의무를 다해가고있는 여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진실하게 담겨져있다.

노래는 주체83(1994)년 7월 남녀평등권법령발포(1946. 7. 30.) 48돛을 계기로 창작되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너무나 뜻밖에서거(1994. 7. 8.)하신 가슴아픈 국상을 당하여 노래는 보급되지 못하고있었다.

허나 그 누구보다 크나큰 사실의 아픔을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은 노래를 잊지 않고계시었다.

피눈물속에서 억척같이 일어나 나라를 받드는 조국의 여성들을 늘 마음속에 안고계신 그이께서는 이 노래를 다름아닌 3.8절을 계기로 온 나라에 널리 보급하도록 하여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세상에 나온 노래는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끌며 보급되었고 조국의 그 어디에서나 울려퍼지게 되었다.

주체101(2012)년 3월 8일도 조국인민들의 가슴속에 노래와 함께 깊이 새겨진 날이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기념음악회무대에는 이채로운 종목들이 련이어 올랐다.

객석에 앉았던 여성들은 남편들을 이끌고나와 무대앞에서 흥겨운 춤가락도 펼쳐보이였다.

그이께서는 한종목한종목이 끝날 때마다 제일먼저 박수를 쳐주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사실 그날의 3월 8일은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잃은

피눈물의 날로부터 불과 100일도 안되는 시기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눈물로 3.8절을 맞이하게 될 조국의 여성들에게 밝은 웃음을 안겨주시기 위해 그이께서 무려 10여 차례에 걸쳐 세심한 지도를 주신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모르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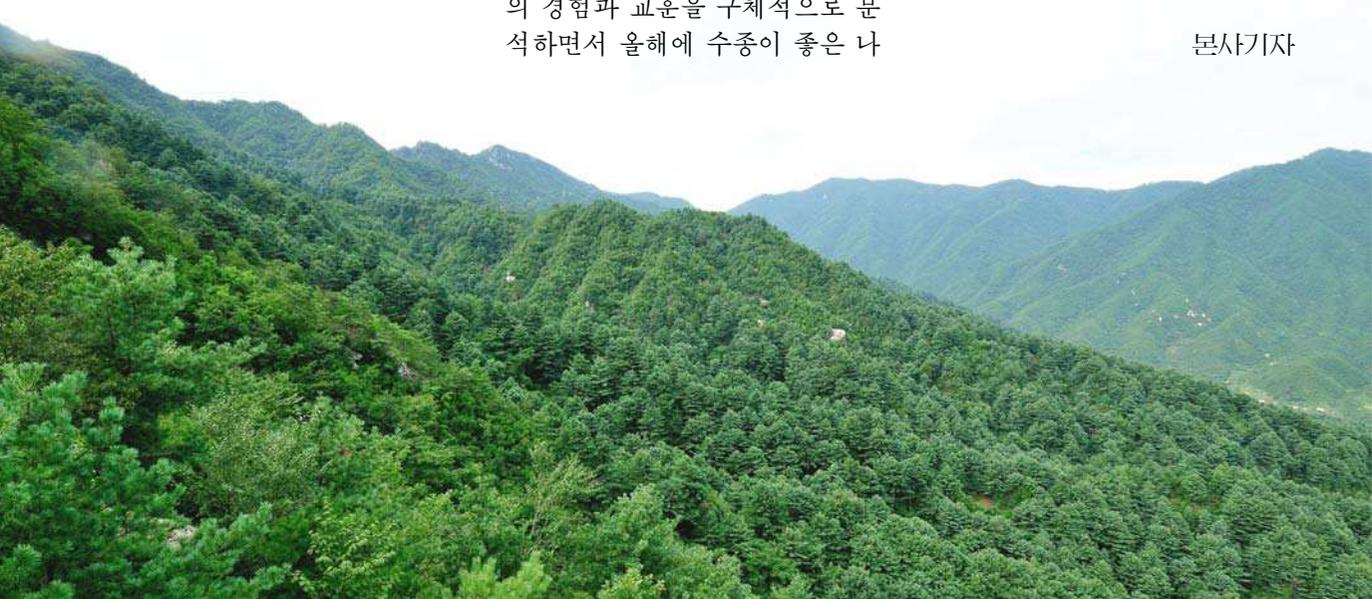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100일추모회를 앞두고있는 시기였지만 3.8국제부녀절 기념음악회를 여느때와 달리 이채롭고 성대하게 조직진행할데 대하여 몸소 발기하시였다.

그리고 일군들에게 공연을 특색있게 하면서도 다른 때와는 달리 관람에 초대되는 모든 여성들이 남편들을 데리고오도록 할데 대하여서와 일군들도 모두 부인들을 데리고와서 쌍쌍이 앉게 하라고 하시였다.

하여 11년전 평양대극장에서 3.8국제부녀절 기념음악회가 이채롭고 성대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원예사의 보살핌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듯이 질세위인의 따뜻한 품속에서 여성들을 위한 사랑의 서사시들은 계속 태어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연 옥





《이 땅에 사는 매 사람들의 꿈을 커
 중히 여겨주고 꽃피워주는 사회주의체제
 의 틀이 있었기에 어케날의 쉼방공이었
 던 내가 세계에 도전하는 연구성과를 내
 놓을수 있었습니다.》

암에 도전한 여성과학자

고려의 학종합병원 연구사
 김춘옥은 지난해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을
 맞으며 당과 국가로부터 뜻깊은
 기념주화를 수여받았다.

기념주화를 수여받던 날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게
 되었다.

그에게 의학자가 될 꿈이 깃든
 것은 어릴적이었다.

강원도의 산골에서 태어난
 그는 유년시절 아버지를 따라
 산밭을 타기 좋아하였고 수림
 속에 있는 여러 종류의 약초들
 의 신비한 효능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약초들을 하나하
 나 채취하며 조국에는 사람에
 게 좋은 약초들이 정말 많다고,
 이걸 심장병에 특효이며 저것은
 지혈작용을 하는 풀이라고 춘옥
 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춘옥의 머리속에는 약초지식이
 하나둘 쌓이게 되었으며 그에
 의한 민간료법들도 터득하게 되
 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의 어느

한 방사공장에서 정방공으로 일
 하면서도 약초채취를 하고 의
 학서적들을 탐독하는것은 그의
 어길수 없는 일과였다.

그는 늘 의사복을 입은 자기
 모습을 그려보곤 하였다.

그렇수록 더 힘껏 일했고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던 어느날 언니처럼
 따르던 한직장종업원이 암으로
 생명을 잃게 되었다.

이날 춘옥은 불치의 병에 도
 전할 결심으로 맛에서는 쓴맛보
 다 단맛이 있으면서도 종물을
 명중하고 전신을 재생회복시키
 는 암치료약을 개발할 목표를
 세웠다.

그는 실을 뽑는 속에서도 자기
 가 세운 목표에 부합되는 수많은
 착상을 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함께



동무들은 적극 그를 도와주었다.
 그에게 필요한 책이 있으면 팔소
 매를 걸어붙이고 구해주었고 신
 문들에 새로운 의학소식이 실리
 면 남뉘저 알려주곤 하였다.

이들의 방조속에 그는
 주체89(2000)년 원산의학대학
 에 입학하였다.

민간료법에 밝았고 의학에 일
 정한 조예를 가지고있던 그는
 대학기간 선행리론에 대한 깊은
 파악에 기초하여 기존관례대로가
 아니라 효소를 넣지 않고 조국
 에 흔한 고려약재를 기질로 하고
 저온, 저압의 생물반응기를 리용
 하여 항암작용과 생리활성작용이
 강한 새로운 성분들을 만드는 제
 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탐구를
 거듭하였다.

야속하게도 성공의 대문은
 쉽사리 열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주저와 멈춤을 몰랐다.

끝끝내 생물반응기에 의한 제
 조법(일명 생물제약법)을 개발한
 그는 졸업후 대학의 연구사로 일
 하면서 그 제조법을 과학적으
 로 정립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10여년간 그는 새로 개발한 항
 암약에 대한 담암동물의 병리조
 직학적실험을 진행하였다.

나라에서는 주체103(2014)년
 그를 평양으로 소환하여 그가 연

구하는 생물반응기에 의한 제조
 법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과학
 화하도록 조건과 환경을 마련
 해주었다. 국가과학원을 비롯
 한 여러 련관단위들의 도움속에
 그는 주체110(2021)년에는 립상
 실천에서 검증된 인삼삼지구엽
 초항암알약을 내놓게 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증
 서를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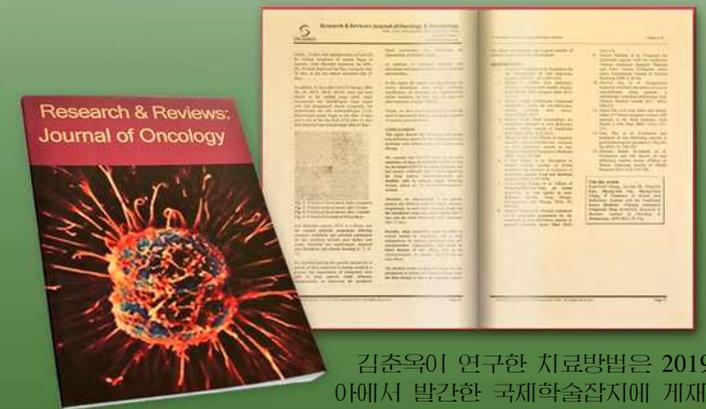
그가 개발한 항암알약은 암
 환자들의 골수에서 전능성줄기
 세포를 재생하여 암세포에 의해
 손상된 유기체의 세포와 장기를
 회복하면서 종물증식을 억제, 축
 소시키는것으로 하여 환자들에게
 생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와 관련한 그의 소논문은 국
 제잡지에도 게재되었다.

그는 도서 《비노기질병의 고
 려치료》, 《암치료에 쓰이는 약
 용식물》, 《고려약치료편람》
 등을 집필하였으며 그가 개발한
 약과 논문들은 국내외학파학토론
 회들에서 평가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학위론문을
 쓰라고 권고하지만 그는 그보다
 먼저 인민의 건강증진에 이바
 지하는 더 좋은 의약품개발에
 혼심을 다 바치고있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김춘옥이 연구한 치료방법은 2019년 인디
 아에서 발간한 국제학술잡지에 게재되었다.

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조국의 거리를 더욱 이채롭게 단장하는 것은 민족의상차림을 한 여성들의 몸단장이다.

조국의 곳곳에 꾸려진 조선 옷점들에서는 조국여성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여성들에게도 그들의 기호와 계절에 맞게 조선옷들을 봉사해주고있다.

3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는 대성백화점 양복점도 그중의 하나이다.



민족옷의 전통미를 살려

대성백화점 양복점은 백화점 창립과 함께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다.

특히 조선옷제작기술이 우수한것으로 하여 이곳의 제품들은 국내인민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속에서 수요가 높다.

일상옷, 결혼식옷, 명절옷 등 이곳에서 제작되고있는 민족옷들은 민족적색채가 짙으면서도 현대미를 잘 결합시킨것으로 하여 구매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고있다.

무늬형상에서 회화적느낌이 강하고 색조화가 세련되었다는것이 주문자들의 한결같은 호평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조선옷창작가인 리순화는 조선옷의 미를 살리는데서 중요한것이 옷의 색깔이라고 말하고있다.

그는 색을 선택하는데서 원색이 아니라 부드러운 중간 색계렬의 색배합으로 옷의 세련미와 푹푹감, 품위를 다같이

살려내고있다.

무늬형상에서도 옷감의 재료와 색깔에 맞으면서도 친근감을 안겨주고 민족적정서를 질게 풍겨주는 무늬들을 각이하게 선택하고있다.

참신하고 독특한 무늬형상을 통해 조선옷의 전통미와 시대성, 유행미를 배합시키는데는 이곳 제작자들의 일관한 창작태도이다.

정교한 수예기법과 조선화의 전통기법으로 섬세하게 형상된



전통무늬들은 옷의 색깔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우아한 예술작품을 방불케 한다.

설계와 재단, 가공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기울여가는 제작자들의 깐진 일숨씨는 조선옷의 품위를 더욱 살리고 있다.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이며 오랜 재단공인 책임자 조혜련은 창작가들과 가공자들에게 늘 조선옷가공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족적인것을 적극 살려나가는것이 기본이라고 늘 강조하고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외국인여성들속에서 우리 제작소에 조선옷을 주문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들은 조선 치마저고리를 입고서는 한결 같이 옷이 매우 아름답다고 감탄을 아끼지 않는다. 나는 그 이유를 조선옷의 고유한 민족적인것에 있다고 찾아본다.》

만족을 모르는 이곳의 제작자들은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오늘도 집체적지혜를 합쳐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자연의 변화를 예측하는 사람들



재해성이상기후로 인한 혹심한 피해가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있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기예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과학적이며 정확한 일기예보를 알려주기 위해 애쓰는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예보대의 예보원들에 대해서는 종종 잊고 산다.

예보원들은 누가 알아주건말건 맡은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고있다. 그들의 성의있는 노력과 고심어린 연구로 얻어진 일기예보에 의해 나라의 자연부원과 인민의 생명재산이 보호되고있는것이다.

지난해 여러 차례의 태풍과 큰물이 조국의 여러곳을 휩쓸었을 때에도 그들은 실시간 변화되는 기상상태를 신속정확히 예보해주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사실 여러가지 지질학적 및 기상학적요인에 의하여 천변만화하는 자연의 조화를 예측한다는것이 결코 험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예보원들은 일기도와 방대한 기상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예보



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특히 예보원들은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재해성기상현상에 대처하여 예보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데 심혈을 바치고있다.

결과 재해성기상현상들에 대한 감시와 분석을 보다 심화시키고 과학적인 예보자료들을 신속정확히 통보해줄수 있는 자연재해위험감시체계가 개발되어 전국의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재해성기상현상에 제때에 대처할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예보의 질적공고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는 전국적인 기상자동관측망을 형성한데 이어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부문에서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고정밀 농업기상종합봉사체계도 확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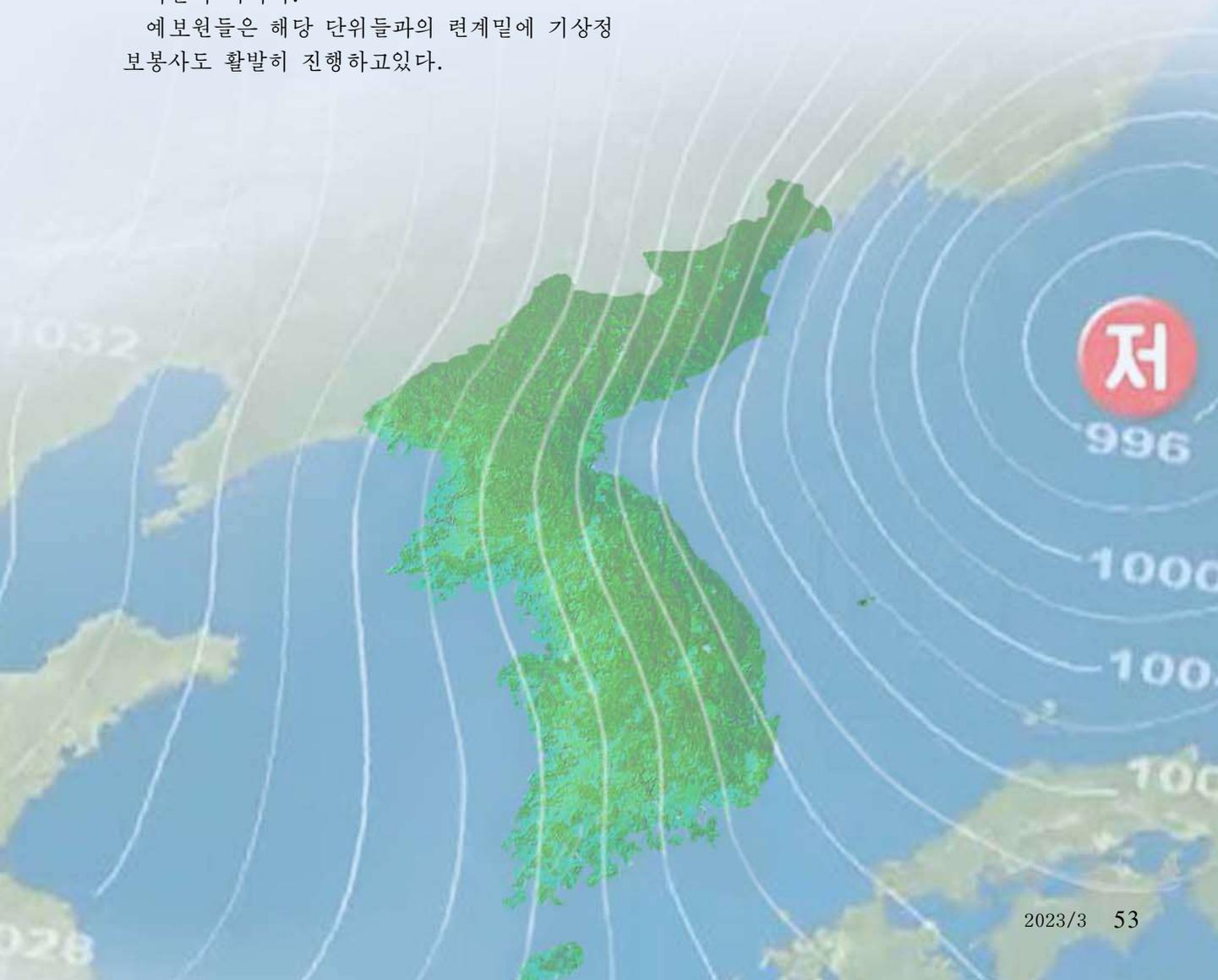
이뿐이 아니다.

예보원들은 해당 단위들과의 연계밑에 기상정보봉사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기상수문국홈페이지 《첨성대》를 통하여 재해경보, 기상예보, 기상관측자료, 기후관측자료, 농업기상자료 등에 대한 여러가지 봉사를 진행하여 사람들이 재해성기상현상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고있다.

기상수문국 부국장 겸 중앙기상예보대 대장 리성민은 《과학연구사업은 그 성과가 먼 후날 나타나지만 예보사업은 다음날이면 인민들의 평가를 받는다. 하기에 우리는 예보의 정확성보장에 만전을 기한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이어가는 애국의 길

애국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선대가 애국자일 때 후대 역시 애국자이어야 선대의 모습도 빛이 나고 후대의 모습도 빛이 나는 것이다.

리무철이 그렇게 살고있으며 오늘은 그의 아들 리휘성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고 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생체공학연구소 실장 공훈 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 리무철이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박사원에서 공부할 때 동년배들은 그의 열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그의 열정의 근저에 무엇이 뿌리박고있는지 그들은 다는 몰랐다.

그의 가슴속에는 부모들이 심어준 넋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다.

대학시절이나 과학연구의 나날에도 그는 언제나 그 넋을 고이 간직하고 참되게 살기 위해 애썼다.

때로는 연구사업에서 거듭되는 실패로 마음이 약해져 뒤로 물러서려 하던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면 아버지의 당부를 잊었는가 고 묻는 어머니의 엄한 목소리가 그의 귀가에 울리곤 하였다.

무철에게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표상은 너무도 삭막하였다. 그가 너무 어릴 때에 아버지가 일본에서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그후 어머니는 울망줄망한 5남매를 데리고 조국의 품에 안기였다.

조국에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자식들모두가 소학교, 중학교, 대학을 졸업할 때마다 어머니는 늘 자식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였다.

무철의 아버지는 나라가 해방된 이후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이었다. 운명직전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자식들을 데리고 조국으로 가라고, 나라에서 말아 잘 키워줄것이라고, 자식들을 참인간으로, 애국자로 키워달라고 당부하였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남긴 유언이기도 하였다.

집안의 외아들인 무철은 아버지의 유언을 자주 생각해보곤 하였다. 그럴 때면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고 짧았어도 빛나게 산 아버지의 생이 돌이켜졌으며 자신도 아버지처럼 살려는 결심이 굳어지곤 하였다.

그 결심은 아버지없는 설움을 모르도록 따듯이 풀어주고 키워주는 조국에 대한 보답의

일념으로 충만된 것이었다.

그런 그였기에 그는 박사원시절에 어느한 공장의 금속관인쇄공정지능안전조종체계를 실현하는데 이어 어느한 단위의 조명설비들을 현대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들을 련이어 내놓아 사람들을 놀래웠다.

박사원과정을 마치고 대학의 전자공학부 생체전자공학강좌(당시) 연구사, 생체전자공학실 실장사업을 하면서는 의료기구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중점연구과제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그의 연구성과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주체104(2015)년에 선진수준의 의료설비인 라선식뇌CT를 개발한 것이다.

당시 그가 연구사업에 착수하려고 할 때 어느한 나라의 관계자는 CT설비개발국이라고 하는 일부 나라들에서도 설계만 자기의것이고 부분품들은 다른 나라의것을 가져다가 제작하고있는 형편인데 어떻게 자체로 개발하겠는가, 만약 것처럼 현대적인 CT설비를 당신들이 만든다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이 연구과제는 어렵고도 힘든 과제였다. 한것으로 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연구과제에 대한 확신을 못가지고있었다.

하지만 무철은 자기의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연구집단과 힘을 합쳐 세계적으로 노우하우라고 하는 화상해구성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한데 이어 설비가동에 절실히 필요한 부분품도 제작하였다. 그리고 대용량자료를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할수 있는 자료측정체계를 구축한데 이어 설비제작도 끝냄으로써 라선식뇌CT 개발에서 성공하였다.

그후에도 그는 첨단의료설비인 눈전기생리검사기를 비롯한 많은 의료설비들을 새로 개발하거나 발전시켰다. 그리고 적지 않은 제자들을 박사로 키웠으며 수많은 도서들과 교과서, 논문들을 집필하여 후비육성에 기여하였다.

그의 동료들조차 《리무철선생은 의학부문과 인민경제의 정보화,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라고 탄복하였다.

그는 2016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되었으며 두차례의 2. 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았다.

나라에서는 리무철을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내세워주었으며 지난해 4월에는 그에게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인 경루동의 호화주택을 배정해주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아들 리휘성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28살에 박사가 되었으며 지금은 대학의 연구사로 일하고있다.



리무철의 가정은 중구역 경루동 12인민반 12호동 3층 2호에서 살고있다.

농촌진흥의 설계도따라 변모되는 **소신남새농장마을**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새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는 리상문가족

부터 시작되었다.
 배스를 리용하는 승객들중에는 새집들이를 한 딸네 집으로 나들이를 가는 로인내외도 있었고 TV로 방영된 살림집들이 너무 멋있어서 새집구경을 간다는 청년들도 있었다.
 그들사이에 오고가는 화제가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TV로 보니 평양시내의 살림집들 못지 않더구만요.》라는 청년의 말에 로인내외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임자의 말이 옳아.》
 흥미있는 이야기속에 어느덧 배스는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지역적특색에 맞게 형형색색의 단층, 소층, 다락식살림집들이 펼쳐진 소재지마을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소재지마을의 풍경에 이끌려 감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농장 부경리 리상문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해초에 설계가들이 농장에 와서 건설하게 될 집들의 형태와 구조 등에 대해 농장원들과 합의하고 설계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35세대의 살림집이 일떠섰습니다.》
 우리는 부경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새제5작업

반 농장원 김춘남의 집에 가보았다.
 방도 여러칸이고 널찍한 창고까지 있어 도시살림집 못지 않았다.
 집의 가장인 90살 난 전쟁로병 최순명로인은 《집구경을 하자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문에 불이 일 정도라네. 요즘 우리 손자와 손자며느린 노상 노래를 부르면서 일하러 나가군 한다오.》라며 새집자랑을 하였다.
 이어 우리는 농장마을을 돌아보았다.
 농장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나라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하여 농업생산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의 열의를 느낄수 있었다.
 그들은 더 많은 종자를 확보하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에 이바지하는 새 농기계들을 창안하였으며 남새생산을 늘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었다.
 농장원들은 잠시간이면 농업과학기술보급실에서 남새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실현에 도움을 주는 앞선 남새재배기술과 방법들을 습득하고있었다.
 뿐만아니라 축산업발전에도 힘을 넣고있다. 종합축사도 짓고 축사에서 생산되는 고기와 젓제품은 농장의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있다.
 가정축산은 또 그것대로 밀고나가 어느 가정에

서나 덕을 보고있다.
 농촌진흥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도시부럽지 않은 문화주택들이 건설되고 가정살림과 농장살림은 윤택해져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고장으로 전변되고있다.
 농장은 해마다 남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다. 당의 웅대한 농촌혁명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현실로 체감하며 제 손으로 농촌진흥을 이룩해가고있는 소신남새농장의 근로자들.
 정말 소신남새농장은 돌아보면 볼수록 떠나고 싶지 않은 고장이었다.
 발걸음을 떼지 못하며 연방 사진기샤타를 누르는 우리에게 농장의 경리 강봉남은 《올해에는 우리 구역과 농장에서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을 새로 짓고 300여세대의 살림집들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농장에 다시 와서 찍어주십시오.》라고 사람좋게 웃으며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더 아름다워질 소신남새농장의 래일을 그려보며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이곳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의 시원은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전호에서 계속)

불변의 진로를 따라 상승일로를 걷다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주석님께서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재일동포들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1954년 9월 전후복구건설을 이끄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새형의 해외교포조직을 내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새 조직의 활동에서 기본으로 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새 조직은 재일조선인의 생활문제, 공화국국민권옹호문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보장문제, 조국통일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투쟁하는 조직으로 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직은 공화국정부의 지도밑에 활동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해당한 국가적조치들도 다 취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주석님의 세심한 가르치심과 현명한 령도에 무한히 고무된 애국적인 재일조선인

동가들은 새형의 해외교포조직을 내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주체44(1955)년 3월 민전 제19차 중앙위원회에서 한 한덕수동지의 《재일조선인운동의 전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하여 위대한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방침에 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의 로선을 민족적애국운동으로 전환할데 대한 확고한 립장과 근거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재일동포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살았다. 김일성수상님의 로선전환방침은 우리의 등대이다.》라고 탄성을 터치면서 위대한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로선전환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투쟁속에서 드디어 민전의 해산이 결정되고 주체44(1955)년 5월 25일과 26일 이틀간에 걸쳐 도교아사구사공회당에서는 재일조선인운동사에 력사적인 계기로 기록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

를 결성하는 대회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총련은 민족적애국운동을 불변의 기치로 높이 들고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조직으로서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족애국의 한길을 줄기차게 걸어올수 있었습니다.

우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는 이 세상 그 어느 해외교포조직이나 교포들에게 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세계해외교포운동사의 전행정에 결성 첫 시기에 택한 자기의 진로를 변함없이 고수하며 그를 유일한 무기로 틀어쥐고 상승일로를 걸어온 교포조직이나 교포들은 우리 총련과 재일동포들밖에 없다는 그것입니다.

총련은 위대한 주석님께서 가리켜주시는 주체의 로선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이역의 모진 풍상고초를 슬기롭게 이겨내며 애족애국의 큰 산을 하나씩 넘어왔습니다.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전

력사가 험로역경의 가시덤불을 헤쳐야 하는 고행의 련속이었지만 총련은 이 만고불멸의 진로가 있어 애족애국의 전구마다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올릴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총련을 결성하시여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은 자주시대 해외교포운동의 개척자, 총련의 창건자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삶의 은인, 자애로운 어버이입니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20세기 재일조선인운동의 활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고귀한 애국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 * *

위대한 주석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을 총련의 기본사업방향으로 규정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의 존재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하나로 잇닿아있다고 하시면서 총련이 자주의 기치, 애족애국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결성

40돛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서한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와 주체88(1999)년 4월 20일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변화된 환경과 실정에 맞게 사업방법을 개선하여 총련의 군중적지반을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는 그이의 천재적예지의 빛발인 동시에 위대한 주석님의 뜻대로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을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가시려는 숭고한 뜻의 발현이었습니다.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실천을 낳는 법입니다.

총련이 우리 조국의 자랑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경탄해마지 않는 애족애국의 선각자, 애국충정의 모범, 세계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로 누리에 그 이름 높이 떨쳐올수 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과 현명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입니다.

오늘 우리 총련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력사적진군길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유훈을 불멸의 기치로 추켜들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오직 주체의 길, 애족애국의 길, 강성번영의 길로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의 축하문과 축전, 력사적서한을 보내주시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

포들의 애국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해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8일에는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또다시 력사적인 서한 《각계각층 등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를 보내주시어 새시대 총련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었습니다.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총련부흥의 새시대로 용기백배해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습니다.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이 제시된 때로부터 70돛이 되는 뜻깊은 이 시각 절세위인들의 천출위인상을 다시금 뜨겁게 되새기며 나는 생각합니다.

수령의 사상이 위대하여 총련의 리념이 위대하고 수령의 령도가 위대하여 우리 총련의 력사가 위대합니다.

우리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주석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승리적으로 이끌어 주신 주체의 길, 애족애국의 길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따라 세대와 세기를 이어 끝까지 가고갈것이며 그 길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것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주체111(2022)년 12월 2일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오규상

죄악의 대가는 반드시 결산될 것이다

력사에는 조선민족의 기개를 떨친 애국적장거로, 일제에 의한 또 한차례의 조선인대학살만행으로 기록된 날이 있다. 그날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104년전인 1919년 3월 1일이다.

당시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야만적인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파썸적인 헌병경찰제도를 세우고 각종 새로운 악법들을 련이어 조작하면서 조선인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였다.

하지만 일제의 그 어떤 총칼탄압과 공포통치도 죽을지언정 외세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조선인민의 날로 거세여지는 반일기운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일제의 10년간의 야만적인 《무단통치》하에서 상가집 개만도 못한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오던 조선민족의 쌓이고쌓인 울분과 원한이 폭발하여 3.1인민봉기가 일어났다.

평양에서 일어난 대중적인 반일시위투쟁을 봉화로 하여 지퍼진 3.1인민봉기의 불길은 온 강토에 타버려지게 되었다.

봉기는 3월중순에 이르러 전국의 13도를 모두 휩쓸고 만주와 상해, 연해주, 하와이 등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에게까지 급속히 파급되어 전민족적인 항쟁으로 번져갔다.

이에 질겁한 일제는 군대와 경찰을 비롯한 폭압무력을 총동원하여 무차별적인 살륙전을 벌렸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총과 칼로 살륙하는것도 아깝다고 뇌까리며 귀족같은 만행을 다 저질렀다.

오죽하였으면 당시 그 상황을 목격한 한 외국인인 《... 일본인은 그와 같은 극도의 흉포한 만행을 감행하고도 오히려 그것이 부족하여 그이상 더 방법이 없는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정도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력사에는 강점한 나라의 인민들을 탄압한 식민주의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자료가 수많이

기록되어있지만 일제와 같이 이렇듯 야수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시위참가자들을 무참히 살륙한례는 찾아볼수 없다. 이 살륙행위는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일제의 과거죄악을 놓고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0만명의 조선여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끌어가고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을 강제연행하였으며 100여만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것을 비롯하여 일제가 조선민족에게 끼친 인적, 물질, 정신적피해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

이렇듯 특대형범죄를 저지른 일본이지만 패망한지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커녕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저들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정치가들이 앞장서 과거죄행을 미화하는 망발을 내뱉고 특급전범자들을 《영웅》으로 떠받드는가 하면 《히노마루》, 《기미가요》를 《국기》, 《국가》로 합법화하였다. 짐승도 낮을 붉힐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진상을 뒤집기 위해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모독하고있으며 력사교과서를 개악하여 자라나는 세세대들에게 군국주의사상을 심어주고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민족의 신성한 땅을 제땅이라고 우겨대며 그 무슨 《다계시마의 날》이라는것을 만들어놓고 해마다 이날이 오기만 하면



일제는 평화적시위참가자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독도를 무조건 되찾아야 한다고 기염을 토한다. 최근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이 더욱더 로골화되고있다. 방대한 군사비를 탕진하며 전쟁능력을 보유하고 다른 나라를 선제공격하겠다고 뼈저릿이 문서화하여 발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때없이 《주변위협》설을 증폭시키면서 반공화국여론을 집요하게 날조류포시키며 조선반도주변해상과 공중에서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 남조선과의 모험적인 합동군사연습에 계속 가담하고있다.

더우기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침략전쟁연습소동에 대처한 공화국의 자위적조치를 감히 걸고들면서 렬도전역을 조선인배척의 란무장으로 만들고있다. 지난해에도 도쿄조선중고급학교, 고베조선고급학교 등에 《북조선의 학교를 일본에 존재시킬수 없다.》, 《일본에서 법이 정비되면 너희들의 시설을 파괴할것이다.》라는 악의에 찬 내용의 협박전화들을 해댔다. 지어 우익강패들이 아이찌, 이시가와, 군마현 등에 있는 총련기관들 주변에 방송차를 내몰아 《북조선인은 나가라.》는 나발을 불어댔다. 최근 조선학교와 학생, 총련기관들을 대상으로 감행된 증오범죄건수만도 무려 10여건이나 된다고 한다. 지금 과거 조선민족에게 끼친 죄악의 력사를 성근하게 반성할대신 죄악에 죄악을 덧쌓으며 온갖 못된짓을 다하고있는 일본반동들에 대한 온 겨레의 증오심과 복수심은 더욱 높아지고있다.

천추만대를 두고서라도 일본의 죄악의 대가를 끝까지 받아내어 쌓이고쌓인 민족의 한을 기어이 풀려는것은 조선인민의 철석의 의지이다.

일본의 죄악은 반드시 결산될 것이다.

본사기자



덕수궁앞에 펼쳐나선 3.1인민봉기 시위자들



3.1인민봉기를 보도한 외국의 신문자료들

고조선에 뿌리를 둔 신라

신라는 1세기초중엽부터 935년까지 존재한 봉건국가로서 고구려, 백제 등과 함께 삼국시기의 대표적인 나라들중의 하나이며 그후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가 성립하기 이전시기 발해와 병존한 나라이다.

역사발전과정을 놓고볼 때 신라의 역사는 전기신라와 후기신라로 갈라진다. 즉 신라봉건국가가 성립된 때로부터 7세기중엽까지 고구려, 백제와 함께 존재하던 시기의 신라를 전기신라라고 하며 그후 대동강남쪽지역을 판도로 삼고 그 이북의 발해와 병존한 신라를 후기신라라고 한다.

신라는 사로봉건소국을 모체로 성립된 나라였다.

그후 사로봉건소국은 진한내부에서 주도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여 1세기초중엽에 독자적인 신라봉건국가로 발전하였다.

신라의 수도는 그 성립으로부터 마지막시기까지 경주(오늘의 경상북도 경주지역)에 있었다.

신라는 건국이래로 고정된 나라이름이 없이 《사로》, 《사라》, 《서라(나)벌》, 《계림》, 《신라》 등으로 불리워왔다.

그러다가 503년에 이르러 국호가 정식으로 《신라》로 고착되게 되었다.

신라는 왕권중심의 중앙집권적통치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중앙과 지방의 통치제도를 완비해나갔다.

이 시기 전기신라는 경제문화적으로 발전을 이룩하고 군사력을 강화발전시켜나가게 되었다. 그 중요한 요인은 사회의 전진을 위한 신라인민들의 창조적로동과 함께 고구려의 앞선 문화와 기술을 적극 받아들인 데 있었다.

원래 고구려, 백제보다 뒤늦게 세워진 신라는 두 나라에 비하여 경제문화적으로 뒤떨어지고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그리하여 신라는 고구려를 대국으로 받들면서 그의 정치군사적지지와 비호를 받는 한편 선진적인 문화와 제도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자체의 힘을 키워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전기신라시기부터 신라통치배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의 나라들을 해치려는 야망 밑에 군대를 대대적으로 늘여 동족대결에 나섰다.

660년에 외적이 백제를 침공하였을 때에는 그에 발을 맞추어 5만의 군대를 동원시켰으며 668년에는 무려 20만에 달하는 무력을 편성하여 외세와 함께 고구려를 침공하는 행위를 감행하였다.

신라통치배들의 사대배족행위는 후기신라시기에 들어와서도 계속 감행되었다. 732년에는 발해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추구하던 나머지 외세에 추종하여 동족의 나라인 발해를 반대하여 신라군을 출동시키는 망동도 부리었다.

그러나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신라의 경제와 문화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였다.

신라에서는 6~7세기에 한때기 땅에서도 물이 있을 때는 벼농사를 하고 물을 댈수 없을 때에는 밭농사를 하는 《수륙겸종》방법을 적용하였고 벼뒤그루에 보리를 심는 2모작재배를 적극 도입하여 농업생산을 장성시켰다.

기상학과 천문학, 의학을 비롯한 과학분야와 건축술, 금속가공기술 등 문화의 여러 분야가 당시로서는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였다.

신라에서는 7세기전반기에 천문대인 첨성대를 건설하여 기상학과 천문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전기신라의 건축술을 보여주는 건축물에는 황룡사도 있었다. 오랜 기간의 건설을 거쳐 645년에 완공된 황룡사는 신라의 절들가운데서 제일 큰 절이었으며 고구려의 금강사, 백제의 미륵사와 더불어 삼국시기 우리 나라에서 가장 웅장화

려한 절의 하나였다.

천수백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변치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있는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은 후기신라의 건축술의 발전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까지 전해오는 신라의 공예품들은 당시 공예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예술적기교도 높았을 뿐만아니라 미술, 금속가공기술, 요업기술, 돌가공기술 등이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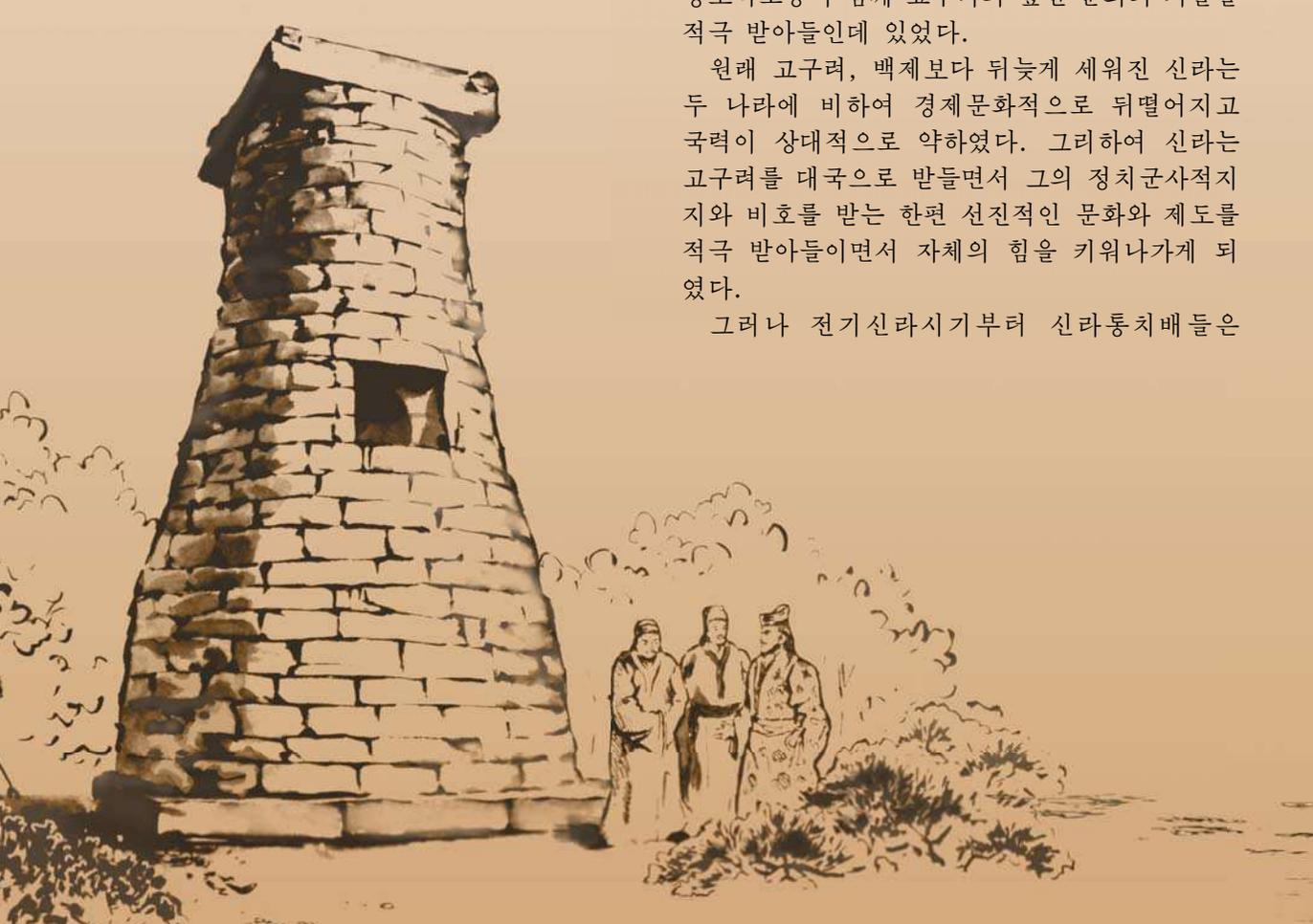
경주석굴암의 조각상들은 고구려교분의 벽화들과 함께 당시 우리 나라 미술의 발전수준을 잘 보여준다. 후기신라의 돌굴형식의 절간인 석굴암은 그리 크지 않지만 조각으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름난 화가 솔거는 신라의 대표적인 화가의 한사람으로서 풍경화, 초상화 등을 다 잘 그리었는데 그가 그린 단군의 초상만도 수십점에 달한다고 한다. 그가 황룡사벽에 그린 소나무는 몸매와 줄기가 비늘같이 우뚝투들하며 가지와 잎이 청청하게 서리운 모양이 마치 산 소나무와 같아서 까마귀, 제비들이 이따금 이것을 보고 날아들다가 부딪쳐 떨어지곤 하였다고 한다.

신라에서는 여러가지 주제의 설화와 시가, 향가를 비롯한 많은 문학작품들이 창작되었으며 특히 그 후기에는 혜초의 《왕오천축국전》과 같은 려행기와 수이전체문학과 관곡시 등 새로운 문학형태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처럼 신라인민들은 자연과 사회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쉬임없이 벌림으로써 우리 민족의 창조의 역사를 빛내이였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 김명일



상식

우리 나라의 첫 우표

우리 나라에서는 19세기 80년대부터 우표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우정총관이었던 홍영식(1855년-1884년)은 우편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쳤다. 그리하여 1884년 11월 8일 우

리 나라 최초의 우표인 《문위우표》(당시 화폐의 단위가 《문》이었는데로부터 붙여진 이름)가 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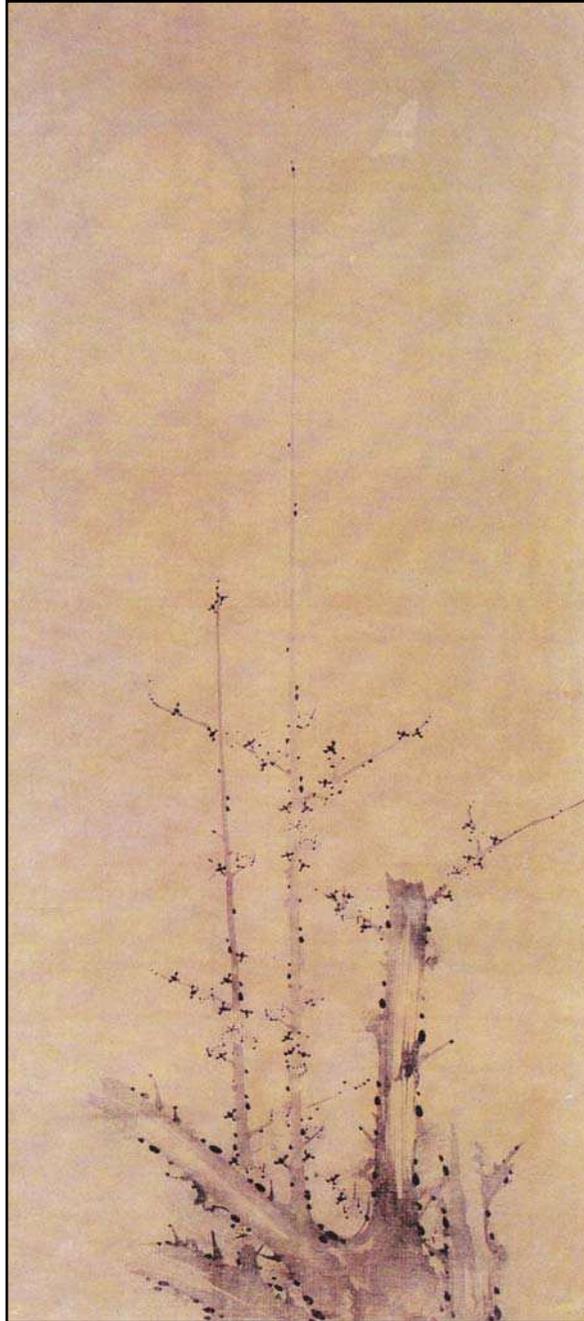
본래 5종(5문, 10문, 25문, 50문, 100문)의 우표가 발행되게 되었으나 5문과 10문짜리 우표

2종이 먼저 발행되어 그해 12월초까지 한성과 인천사이의 우편업무에 사용되었다.

나머지 3종은 다음해초에 나왔다.

* * *

매화를 잘 그린 화가



《달밤의 매화》 (119.4×53.6cm) 비단·먹

어몽룡은 16세기 우리 나라 회화사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한 재능있는 화가이다.

그는 량반가정에서 태어난 《문인화가》의 한 사람이다.

그가 어찌나 매화를 잘 그렸던지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함박눈이 펄펄 내리던 12월의 깊은 밤이었다. 닷새만 있으면 새해라 몽룡은 오래전부터 품을 들여 째째이 그려오던 매화를 새해전에 꼭 완성 하리라 생각하며 붓대를 들었다.

몽룡은 붓끝에 색감을 듬뿍 묻혀 한송이 한송이 정성껏 그려나갔다.

둥근 보름달을 배경으로 교묘한 달빛아래 피어난 매화가지.

큰 매화나무의 한부분이 화면아래의 중심부에 보이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곧추 뻗어올라간 가느다란 가지들에는 달빛을 받아 더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듯한 매화송이들이 피어났다.

어몽룡이 흐뭇한 마음에 그리기를 끝내고 그림종이가 인차 마르게 하려고 퇴마루의 문발에 걸어놓았는데 일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어몽룡이 자리를 뜬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인 하나가 퇴마루걸을 지나게 되었다.

휘영청 밝은 달빛이 거침없이 쏟아져내리는 마당가로 바삐 오가던 하인은 문득 퇴마루우에 활짝 피어난 매화꽃송이를 보게 되었다.

새해를 앞두고 때아니게 아름답게 피어난 매화꽃을 보게 된 하인은 너무도 신기하여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만 보다가 급히 걸을 지나가는 동료들을 불렀다.

《이보게들, 내 눈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저건 분명 매화꽃인데...》

동료가 가리키는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입을 하 벌리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웁소. 매화가 분명하구만. 그런데 이 겨울에 어떻게...》

사람들은 너무도 신기하여 서로서로 얼굴들만 마주보다가 오가는 사람들을 다 불러세웠다. 어몽룡의 집안사람들도 마당에서 법석 떠드는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인가 하여 급히 달려나왔다.

그들속에는 어몽룡도 있었다.

그들이 자기가 그린 그림을 두고 그것이 실물인가 하여 앞을 다투어 떠든다는것을 알게 된 어몽룡은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기도 하여 터져나오는 웃음을 애써 참으며 문발에 걸어놓았던 매화꽃그림을 내리웠다.

그때에야 그것이 다름아닌 그림이라는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몽룡의 그림솜씨를 두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런 일은 그후에도 여러번이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킨 그림이 바로 어몽룡의 대표작으로 손꼽을수 있는 《달밤의 매화》(월매도)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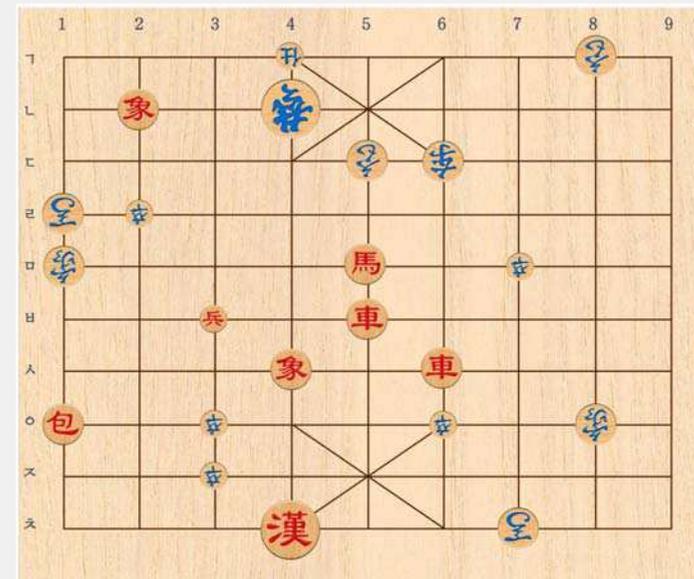
어몽룡이 그린 《달밤의 매화》는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그림에는 화가가 자신있게 큰 붓으로 굵은 가지들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공백들을 남겨 마치도 매화나무가 달빛을 받아 희게 보이는 질감을 훌륭히 나타냈으며 가느다란 아지에 피어난 꽃들의 부드러운 맛을 생생하게 표현하고있다.

금시 툇 다치기만 해도 향기를 풍기는듯한 아릿다운 매화의 생태적특징을 보여주는 이 그림은 보는 사람들을 매혹케 한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일지(한가지의 매화를 잘 그렸다는 뜻)라고 하면서 그의 그림을 극구 찬양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병석

장기수풀이 (3)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합니다.

장기격언

세번 생각하고 한수 쓰라
수를 쓸 때 덤비지 말고 심중성을
보장하라는 뜻이다.

《진 다음 후회말고 다시한번 보라》는 말과 같이 한수한수를 깊이 생각하고 쓰라는 조언적인 말이다.

장기수풀이 (2)에 대한 답

ㄴ7차 17, 14궁 15, 15상 18,
ㅇ7차 17, 11말 13, 15궁 15,
17차 17, 17차 17, 13말 14,
15궁 14, 14말 12, 14궁 15,
14상 12, 15궁 16, 13말 15,
장훈

건강과 장수를 도모하는 정과



여러가지 정과들

- 1 인삼정과
- 2 과일정과
- 3 런뿌리정과
- 4 감자정과
- 5 고구마정과
- 6 흥당무우정과
- 7 대추정과
- 8 도라지정과

얼마전 나는 대동강반의 한 공원에서 퇴근길에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며 앉아있느라니 뒤에 있는 걸상에 나란히 앉아 소곤소곤 속삭이는 젊은 부부의 목소리가 나의 귀가로 들려왔습니다.

《오늘 개성에 출장갔다운 우리 처장동지가 당신에게 인삼정과를 맛보이라며 이렇게 보냈소.》

《어마나. 개성 고려인삼은 귀물인데 저에게까지...》

《처장동지는 우리 결혼식때 보니 당신 몸이 좀 약해보인다고 하면서 이 인삼정과를 먹고 꼭 사내애를 낳으라고 하더군.》

이렇게 말하며 남편은 자기 가방에서 인삼정과를 꺼내어 안해의 손에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안해는 한참동안이나 인삼정과를 살펴보니 《아니 여보, 거무스레한 색깔이랑 달착한 냄새랑 이게 어디 인삼인가요? 난 통 모르겠어요.》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녀인은 인삼정과를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뒤에 앉아있는 그들에게로 몸을 돌린 나는 《저에게도 그 인삼정과를 보여줄수 있습니까?》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침 시간이 있었던 나는 젊은 부부에게 우리 민족의 고유한 당과의 하나인 정과에 대해 설명해주고싶었습니다.

그럼 동포여러분에게도 정과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먼 옛날에는 산과 들에 철따라 열리는 갖가지 과일과 식용식물을 지금처럼 생신하게 보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과일, 약용 및 식용식물의 열매, 씨, 뿌리 등을 당분에 재워 졸여놓았다가 오래동안 건사하고 즐겨 먹었는데 바로 이것을 정과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정과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보기로 합시다.

옛 기록에는 정과를 전과 또는 밀전이라고도 불렀는데 여기에는 과일을 꿀에 졸였다는 의미가

담겨져있다고 합니다. 즉 《전과》가 《정과》로 음이 달라졌을뿐 전체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정약용(1762년-1836년)이 쓴 《아언각비》에 의하면 정과는 꿀에 졸인다고 하였습니다.

정과의 기본적인 가공방법은 《고사신서》, 《증보산림경제》, 《림원십육지》, 《규합총서》 등 여러 역사문헌들에도 구체적으로 서술 되어있습니다.

정과의 가공방법에서 특징적인것은 주재료의 특성에 맞게 초벌가공을 다양하게 한것입니다.

《고사신서》, 《림원십육지》, 《증보산림경제》에 의하면 신맛이 나는 과일인 경우에는 박초를 탄 물에 넣어두거나 꿀에 달여 찬물에 담그어놓는 방법으로 신맛을 없애어 정과를 만들고 매운맛이 있는 생강의 경우에는 물과 함께 약한 불에서 달이는 방법으로 매운맛을 80~90%정도 없애고 만들며 씹살한 맛이 있는 도라지인 경우에는 쌀씻은 물에 담그어놓는 방법으로 쓴맛을 없앤 후 정과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매 주재료들의 특성을 잘 알고 그에 맞는 가공방법으로 다양한 정과를 만들어 식생활에 리용하여왔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정과에서 대표적인것은 여러가지 재료를 그대로 또는 썰어서 꿀이나 혹은 물엿에 재워 졸여낸 찹쌀이정과, 생강정과, 유자정과, 도라지정과, 런뿌리정과, 인삼정과, 배정과, 살구정과, 매화나무열매정과, 들쭉정과, 동과정과 등입니다.

이러한 정과를 당분을 탄 물에 띄우면 향기롭고 달면서도 시원하며 독특한 맛을 가진 수정과가 쉽게 만들어집니다.

정과에는 과편(혹은 편), 숙실과로 불리우는 것들도 있습니다.

과편은 말그대로 과일떡이라는 뜻인데 다 만든 후 묵형태로 굳어진것이 마치 떡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과편의 주재료로는 앵두나 딸기, 들쭉, 살구와 같이 상대적으로 물기함량이 많은 과일들이

리용되는데 이것을 먼저 익힌 다음 채에 받아내어
 꿀에 졸이는 방법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과편에 대하여 처음으로 서술한 《고사신서》
 에서는 채에 받아낸 주재료를 꿀과 함께 졸여
 굳히는 방법으로 만드는것으로 기록되어있으나
 그 이후시기의 《규합총서》나 《시의전서》
 에서는 주재료를 꿀과 함께 졸이면서 여기에
 경화제로 옥두가루를 넣어 굳히는것으로 기록
 되어있습니다.

숙실과에는 밤과 대추, 생강으로 만든 료란,
 조란, 강란 등이 있습니다.

숙실과의 가공방법을 보면 크게 2가지로서
 하나는 주재료를 익혀서 짓이긴 다음 꿀을 섞어
 본래모양대로 빚어 만드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주재료를 먼저 짓이긴것을 꿀과 함께 졸인 다음
 본래모양대로 빚는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정과는 만드는 과정에 매 주재료의
 고유한 맛과 꿀의 단맛이 조화되어 독특한 맛을
 낼뿐 아니라 당분이 65%이상 보장되는것으로
 하여 보관성이 좋아 오래동안 두고 식생활에
 리용할수 있습니다.

정과는 설명절날 특색있는 단음식의
 하나였으며 혼례식과 같은 여러가지 의례상을
 장식하였으며 일상시 어린이들의 새참으로도

널리 리용되었습니다.

조국에는 지방에 따라 자기 고장의 특산재료를
 가지고 만든 정과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지방별로 보면 평안도지방의 밤정과,
 동글레정과, 함경도지방의 백살구정과, 황해도
 지방의 배정과, 대추정과, 강원도지방의 도라지
 정과 등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과로는
 개성인삼정과를 첫손가락에 꼽았습니다.

동서고금 그 어느 나라에서나 장수약재로
 일러오는 개성고려인삼으로 만든 인삼정과는
 영양가와 약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허약한 몸을
 추세우거나 앓고난 뒤의 영양보충에 매우 특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되며
 설사하는데, 당뇨병, 가슴두근거림, 잠장애,
 저혈압, 성기능장애, 빈혈, 간염, 허탈 등에
 효과가 좋은 보약으로 됩니다.

동포여러분, 오늘도 맛과 향기가 독특하고
 건강에 좋은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를
 도모하고있는 정과를 이역에서도 즐겨 맛보시기
 바랍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안현철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조국의 전통주

리강고

매의 달고 시원한 맛

생강의 생큼하고

향긋한 맛



주체 107(2018)년 10월
 리강고양조기술은 국가
 비물질문화유산 제98호로
 등록되었다.

상식

질병치료에 좋은 5가지 산보법

- 보통산보법

분당 60~90보, 시간은 20~40분
 정도이다.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 뇌졸
 중후유증이나 호흡기계통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 쾌속산보법

분당 90~120보, 시간은 30~60분
 정도이다.

류마치스성관절염, 위장염, 고
 혈압회복기에 들어선 환자들에게
 필요하다.

- 뒤걸음산보법

등뒤에 있는 허리부위의 경혈
 을 손으로 누르면서 천천히 50보
 뒤걸음질한 후 다시 앞으로 100보
 걷는다.

이렇게 뒤걸음질하다가 앞으로
 걷는 회수가 5~10번이면 경한 치
 매증이나 신경계통질환이 있는 로
 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 팔휘젓기산보법

두팔을 앞뒤로 비교적 크게 휘
 저으면서 분당 60~90보 걷는데

관절염, 폐기종 등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 배안마산보법

걸을 때 두손으로 배회전안마를
 하면서 분당 30~60보, 매 걸음에
 한번씩 회전안마를 하되 시계바늘
 이 도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엇
 바꾸어 한다.

산보시간은 30~50분인데
 위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다.

* * *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βph@star-co.net.kp

